

리아호나

A woman with a white headscarf and a yellow top is shown in profile, looking down at a baby lying in a hospital bed. The scene is lit with warm, soft light, creating a tender and intimate atmospher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16, 22,
28쪽

우리는 왜 조직화된 종교가
필요한가, 44쪽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46쪽

게임을 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70쪽



리 아호나는 전 세계 후기 성도들에게 “제자되기 실험”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한 가르침 혹은 이야기에 대해 한 주동안 공부하고 그들의 공부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2쪽에는 이 실험에 참여한 여섯 명의 회원들이 보고한 내용이 실려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과 그 내용이 어떻게 그들이 지금 구주를 따르는 방식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겸손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바로 그곳에서
영성이 자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영감의 열매가
열립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삶에
필요한 계시와
영감을 받는 방법”,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7쪽



상화: 로버트 티 버넷

브리검 영

브리검 영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솔트레이크밸리까지 개척자들을 이끌었다. 교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에는 유타 준주 주지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글 게이트는 브리검 영의 사유지로 들어오는 입구를 상징했다. 브리검 영은 그의 **지팡이**로 **솔트레이크 성전**이 지어질 지점을 표시했다. 브리검 영이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기간은 30년으로, 후기의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오랜 기간 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주저하는 선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8 방문 교육 메시지: 주께로 돌이킨

특집 기사

- 16 고결성: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기초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이 일곱 가지 원리는 고결성을 우리 삶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만들 수 있는 영감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 22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제자가 되어
멜리사 메릴
여섯 명의 회원이 “제자 되기 실험”에서 배운 것을 나눈다.
- 28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이나 견해에 대해, 관용과 존중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교회 본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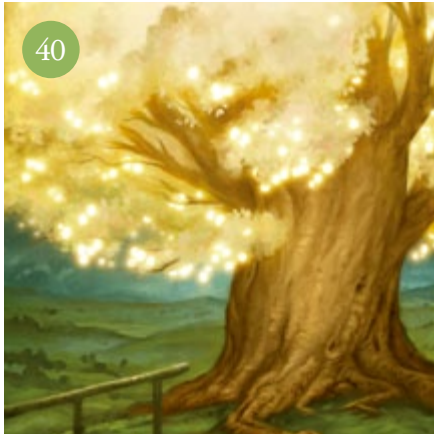
- 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오락과 대중 매체
- 10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3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아빠의 사과 데이비드 학선
- 14 우리의 믿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 36 후기 성도의 소리
- 76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식일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 마이클 알 모리스

표지
앞 표지 사진: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 복구 작업을 돕는 여성, 제프리 디 얼리드와 마이크 테리 © Deseret News. 뒷 표지 사진: 하워드 콜렛 © IRI. 앞 표지 내부 사진: 로이스 베어 Flickr/Getty Images



청년 성인

40



40 모든 때에 적용되는 표준 로리 플러

옳고 그름이 모호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원리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하늘을 보세요.

50



청소년

44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어떤 사람들은 왜 조직화된 종교가 필요냐고 묻는다. 여기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46 질의응답

한 친구가 저를 몹시 불쾌하게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48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조명 ……

카메라 …… 액션!
에이드리언 오초아

50 비디오 게임 중독

익명
비디오 게임을 하느라 교회에 빠지고 경전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균형을 되찾아야 함을 깨달았다.

52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치관

러셀 엠 넬슨 장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여덟 가지 가치관을 발전시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6 우리들 공간

58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친구들이 물어볼 만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간략한 대답.

60 모임 사회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모임에서 사회를 볼 때 이 일곱 가지 제안을 따라보세요.

어린이



62

61 특별한 증인: 경전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르

62 정말 중요한 것

살렛 우드 윌슨
학교 친구들이 나를 놀릴 때 엄마는 오직 두 가지 의견만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다.

64 우리들 이야기

65 빛나는 아이디어

66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지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68 우리 주변에 가득한 아름다움

머리사 위드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어렸을 때 만든 예술 작품과 목각 장식품을 감상해 보세요.

70 등급 규칙

제니퍼 메디
에단 가족의 표준에 맞지 않는 비디오 게임을 체이스가 시작했을 때 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72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선지자 초상화: 브리검 영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타 예프 우흐토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리, 제프리 알 윌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보벤,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앤서니 디 파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알리사 켄데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데이비드 닉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메튜 디 블리튼, 민디 라예 프리드만, 하카리 로프타스, 리아 맥클레넨,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제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케리 린 시 해린, 콜린 헝클러, 에릭 피 존슨, 스캇 엠 무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타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숄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케이 날슨, 기일 타테 러프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말슨

통 관: 제55호, 제50권, 제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환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첨만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율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13 Vol. 37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9
- 가족, 13
- 가치, 52
- 개인적인 가치, 52, 60
-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8
- 경전 공부, 22, 56, 59
- 고결성, 16, 52
- 관용, 28
- 기독교, 38, 44
- 모범, 4, 28, 36, 38, 39
- 모임, 58
- 미디어, 9, 13, 48, 50, 68
- 방문 교육, 8

- 봉사, 22
- 브리검 영, 81
- 선교 사업, 4
- 성약, 14
- 세미나리, 56
- 순종, 40
- 식량 비축, 37
- 안식일, 80
- 언어, 56
- 연차 대회, 10
- 예수 그리스도, 22
- 용서, 46
- 우정, 57

- 우정, 8
- 자립, 37
- 정직, 36
- 제자가 됨, 22
- 존중, 28
- 종파를 초월한 관계, 28, 38
- 진리, 28
- 창조, 64, 66, 70
- 침례, 14
- 표준, 9, 13, 28, 39, 40, 48, 68
- 확인, 14
- 활동 촉진, 8

성인

우리가 믿는 것을(14쪽) 가르칠 때 단순한 말로 기본 교리를 말하면 된다. 다양한 교리와 원리에 대한 많은 간단한 설명이 lds.org/topics에 있다.

청소년

48쪽에서 본부 청남 제2보좌인 에이드리언 오초아가 우리가 보고 듣는 매체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친다. youth.lds.org의 *For the Strength of Youth*(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오락과 대중 매체 표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52쪽에서 심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여덟 가지 청년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청년들은 PersonalProgress.Lds.org에서 이 가치관을 더 깊이 배우고 온라인 상에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주저하는 선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늘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의무를 지닙니다.(마가복음 16:15~16 참조) 하지만 때때로 입을 열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타고난 재주가 있는 교회 회원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주저하고 어색해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저는 “모든 피조물”(교리와 성약 58:64)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구주의 명을 따르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낼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빛이 되십시오

제가 종종 즐겨 인용하는 글귀 가운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말한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내포된 뜻은 종종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교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결하게 항상 표준대로 생활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발산하면 그들은 더더욱 쉽게 알아차립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산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며 그 비밀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라든지 “왜 항상 태도가 긍정적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십시오

특히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종교 문제를 꺼내는 것은 어렵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용기와 상식만 있다면, 일상 대화에서 쉽고 즐겁게 교회 활동과 행사를 이야기하거나 영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아내 해리엇은 그렇게 하는 데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에 살 때 내내는 친구들과 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교회와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는 법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말을 어떻게 보냈냐고 물으면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했죠! 열여섯 살짜리 소년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해 200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은 “한 90세 되는 할머니가 500개 이상의 담요를 뜨개질해서 교회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기증했답니다. 이 담요는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질문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가르칠 때 한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한두
가지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80쪽)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달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나눌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유한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도울 방법을
의논할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복음의
주제를 이끌어내고
곧 있을 교회 활동에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론하거나 역할극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도래로 예전보다
이런 이야기를 일상 대화에서 나누기는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비로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안타깝게도 의견 충돌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논쟁하고 경시하고 비난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화내고
무례하게 굴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더는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기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무례함이 팽배합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해한 것,
혹은 신경을 거스리는 것들을 더 쉽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는 마땅히 그보다 더 높은, 더 자애로운
표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로새서
4:6)

저는 우리의 말이 청명한 하늘과 같이
깨끗하고 자비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단한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 가족, 와드,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자신의 덕이라며 자신을 지나치게 치켜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자신의 탓이라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개종시키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종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신이 주는

하늘의 성역을 통해 옵니다. 때때로 한 마디의
간증이나 경험담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숭고한 진리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대중
앞에서 얘기할 만한 웅변술도, 재능도 없이
단지 ‘몰몬경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선지자라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서’
복음이 참됨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회장님은 그 겸손한 간증을 들었을 때 “성신의
권세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저의 이해와 빛과 영광과 불멸을 제 앞에 밝히
나타내 보여 주[셨다.]”²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말을 영화롭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종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종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과
성신의 몫입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할
방법이 있습니다. 빛과 진리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위대한 사업을 돕기 위해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관심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 때에나 ……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에]”(모사이야서 18:9) 충분히
충실하고 용기있는 자들에게 오는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

주

1. St. Francis of Assisi, in William Fay and Linda Evans Shepherd,
Share Jesus without Fear (1999), 22.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 67쪽.

친구와 나누십시오

에이드리언 바스케스, 콜롬비아

어느 날 세미나리 공과를 예습하고 있는데 아름답고도 분명한 생각이 번쩍 들었다. 다음 날 공과 내용을 읽는 동안 한 학교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친구에게 간증을 나누어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이 생각이 분명히 들긴 했지만, 두려웠다. 친구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특히나 교회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였기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다.

나는 본부 청녀 회장단의 메리 앤 쿡 자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자매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셨다.¹ 나는 그렇게 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고 교회의 참됨과 몰몬경에 대한 내 사랑을 간증했다. 다음날 나는 편지와 함께 몰몬경 한 권을 그 친구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놀랍게도 친구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나는 그 친구를 선교사들에게 소개했다. 토론하자마자 내 친구는 성신으로부터 자신이 배우는 것이 참되다는 확신을 느꼈다. 선교사들과 나는 내 친구가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눈물을 흘렸다. 친구는 곧 침례 받았고 그 친구의 부모님은 내 친구에게 일어난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다.

나는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친구의 삶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주

1. 메리 앤 쿡,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117~119쪽.

어린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청명한 하늘과 같이 깨끗하고 자비로 가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행복하고 정직하며 친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거나 말할 수 있을까요? 아래 표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으려면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불친절한 말 혹은 행동을 찾아 검정색으로 칠해 보세요.

가족 혹은 친구에게 할 다섯 가지 좋은 말을 일지에 적어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기	중재자가 되기	“나랑 같이 쓰자”	예절 바르게 행동하기
“미안해”	논쟁하기	“만나서 반가워.”	싸우기	“돕고 싶어”
“부탁인데 ……”	친절하기	“내 앞에서 비켜”	“사랑해”	“천만에”
화내기	“잘했어”	칭찬하기	“친구 하자”	무시하기
다른 사람들 돕기	모욕하기	험담하기	따돌리기	온유하게 대하기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신앙, 가족, 구제

주께로 돌이킨

상호부조회로 올라온 청년, 재활동화된 자매들, 새로운 개종자들을 비롯한 교회의 새로운 자매들은 방문 교사들의 지지와 우정이 필요하다.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과 또 저활동 회원들을 다시 완전히 활동화시키는 데 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말씀했다. “상호부조회[가] …… 교회의 가장 강력한 우정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배우는 사람들과 다시 활동화되는 사람들에게 빨리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조직을 통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¹

상호부조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회원들이 다음과 같이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 말씀 전하기
- 간증하기
- 금식의 법 지키기
- 십일조와 기타 헌금 내기
-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기
-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침례와 확인 의식 받기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서 편안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 해주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벨라드 장로는 말씀했다.² 우리 모두, 특히 방문 교사들은 새로운 회원들이 굳건히 “주께로 돌이키도록”(엢마서 23:6) 돕기 위해 그들과 우정을 증진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

성구에서

니파이후서 31:19~20; 모로나이서 6:4

주

1. 엠 러셀 벨라드, “회원들이 열쇠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8쪽.
2. 엠 러셀 벨라드,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7쪽.
3. 고든 비 힝클리, “개종자는 모두 소중합니다”,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9쪽.
4. 조셉 필딩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에서, 97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개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서 6:4)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했다.³

방문 교사들은 그들이 돌볼 자매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대개 우정을 먼저 증진하게 되는데, 나이 많은 자매의 방문 교사가 된 한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들의 우정이 금방 증진되지는 않았지만 청소 봉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으며 방문 교육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둘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상호부조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 조직의 충실한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⁴고 말씀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내 동반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자매들을 돌볼 때 인도해 달라고 영을 구하는가?

2. 우리가 돌보는 각 자매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 봉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돌본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가?

오락과 대중 매체



우 리 사회는 선택해야 할 매체로 가득하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와 생각이 들어오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1쪽)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인 에이드리언 오초아는 이번 호 48쪽에서 오락과 대중 매체에 대해 썼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 있는 이유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시험받고, 배우며, 행복해지기 위한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초아 형제는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위대한 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옳지 않을 때 경고해 주시는 성신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한, 선택의지의 권한을 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가르칠 때

-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이 가족과 어떤 영화를 보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그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 본다. 그러한 매체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맞는지

생각해 본다.

- youth.lds.org에 가서 Youth Menu(청소년 메뉴) 아래에 있는 “For the Strength of Youth”(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클릭한다.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을 포함하여 동영상, 경전 참조 구절, 물문 채널 라디오 프로그램, 질의응답, 기사(예를 들어 “Getting Real” 등 참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좋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로 가정의 밤을 한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리아호나*, 2010년 6월호, 22~31쪽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어린이를 가르칠 때

68쪽에 나오는 “등급 규칙” 이야기에서 에단은 가족과 이미 이야기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사용하면 안전한지를 알았다. 자녀들과 이 기사를 읽고 다음 질문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 좋은 매체와 오락을 구분하려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우리가 보고, 읽고, 듣기에 훌륭한 매체는 어떤 것들일까?
- 언제 매체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 어디서 매체를 이용해야 할까?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 오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왜 중요할까?

백지를 반으로 접고 접은 부분을 스테이플로 고정시켜 가족 미디어 안내 책자를 만들어 본다. 각 장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매체의 종류, 가족 표준과 그 매체에 해당하는 선지자의 권고를 함께 쓸 수 있다.

또한 다니엘 케닝턴의 글 “재깍 끄고 말하기”(리아호나, 2011년 6월호, 64쪽)를 읽고 적절한 매체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2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앞으로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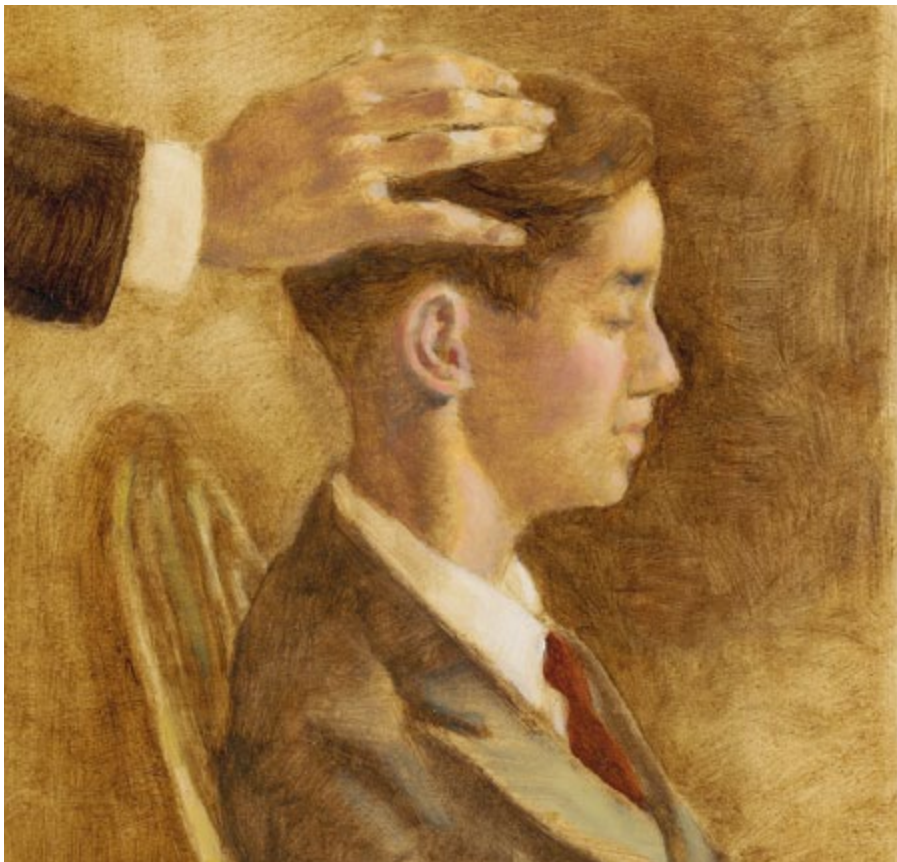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아십니다

열 두 살에 집사가 되었을 당시, 저는 뉴욕 시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뉴저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난 야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브롱크스에 있는, 오래되고 역사 깊은 양키 스타디움 경기에 데려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조 디마지오가 외야 중앙 관중석 쪽으로 홈런을 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때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 함께 간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낸 또 다른 하루로 제 삶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뉴저지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시는, 성임받은 축복사님 덕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뵈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문간에 두고 가셨습니다. 축복사님은 저를 의자로 안내하셨고 손을 제 머리에 얹고



선지자의 약속

“여러분은 그들이 타고난 영적 은사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에 공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아이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0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인 축복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큰 소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9)라고
 불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축복은 제 삶과
 결혼 생활과 신권 봉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경험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릇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교리와 성약 46:11)

저는 저에게 한 가지 은사를 계시해
 주신 주님 덕분에 제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인식하고 그
 기회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아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권고하건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알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인식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영감을
 받아 봉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사를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돕기를 기도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아이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7쪽.



이 말씀 적용하기

- 교리와 성약 46편 11~26절을 읽고 상고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 아직 받지 않았다면,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자료: 신앙에 충실함(2004), “영적인 은사”, 128~130쪽; LDS.org의 복음 주제에서 “영적 은사”.

시련 속에서도 힘을 얻기 위하여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확고부동하게’(앨마서 1:25)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해 준 바로 그 일에 몰두하면 됩니다.

-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 기도하며,
- 경전을 상고하며,
- 회개하고,
- 계명을 지키고,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0쪽; 강조점 추가.

빈칸 채우기

1.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은 선교사 본인과 미래 배우자, 그리고 자손의 _____ 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러셀 엠 넬슨,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8쪽)
2. “우리가 _____ 도움이 될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라.’”(린다 케이 버튼,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8쪽)
3. “성전 및 _____ 사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사업입니다.”(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쪽)
4. “사랑의 궁극적인 특성이란 바로 변함없는 _____”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4쪽)

የሥራው ስራ ስራ ስራ ስራ
 'በጥንቃቄነት ይህን ስራ ይህን ስራ ይህን ስራ'



가족 전통 만들기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님은 부모들이 더 강한 가족 전통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더 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제안은 교회의 문화와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우리의 가족 문화는 ……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1. “부모는 …… 그들의 자녀를 …… 인도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하고, 가능한 한 자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는 교회가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는 자녀에게 자주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5. “분명하고 간단한 가족 규칙과 기대치, 건전한 가족 전통 및 의례, ‘가족 경제’에 기초하여 가족의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8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아빠의 사과

아빠의 사과는 수천
마디 설교보다 더
강력했다.

데이비드 힉선

열 여섯 살 때 나는 처음으로 로큰롤 앨범을 들었다. 아쉽게도 앨범을 들어보니 마지막 노래에 욕설이 섞여 있어 실망스러웠다. 난처했다. 앨범이 우리 가족의 표준에 맞지 않기에 부모님이 분명 허락하시지 않으실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노래들은 좋았고, 나는 그 앨범을 들을 때마다 욕설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볼륨을 낮추었다.

누나는 좋은 의도로 아버지께 내 앨범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중에 아버지와 내가 부엌에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노래에 나오는 욕설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다.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앨범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한테 설득하기 위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동원했다. “샀을 때만 해도 욕설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 노래가 나올 때는 볼륨을 줄여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여전히 그 앨범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 학교를 그만 두겠어요! 그런 욕설과 그보다 더 한 말을 매일 학교에서 듣는단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좌절하기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 욕설이 섞인 음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셨다. 내가 더 심한 죄도 저지를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말조차 절대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논쟁이 더 격화되었다.

나는 상황을 돌리려 노력했다.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만 보시고 저를 사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굽히지 않으셨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 방으로 광둥거리며 올라가 문을 꽁 닫고서는 몹시 화가 난 채로 침대에 벌렁 누웠다. 머릿속으로 내가 한 말을 곱씹으며 잘못된 내 논리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고 내가 옳았다는 확신을 더 굳혔다.

10여분 뒤,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표정이 변해 있었다. 나랑 논쟁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다. “화내서 미안하구나. 용서해 주겠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시는지 말씀하셨다. 나한테 설교하거나 권고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조용히 방을 나가셨다.

겸손에 대한 수천 마디 설교도 이처럼 강하게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더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토록 완고하고 까다롭게 굴었던 것이 화가 났다. 나는 앨범을 집어서 두 동강을 내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한 걸 아버지께 말씀드렸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자신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데이비드 힉선은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할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1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우리는 하늘 왕국에서 구원 받기 위해 침례받고 (확인 의식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믿는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주님은 또한 다른 모든 복음 의식처럼 침례 의식은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집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려 나온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물 속에 내려가, ……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 속에 잠근 다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73~74)

침수료씨의 침례는 죄인의 장례, 그리고 “새 생명”(로마서 6:4) 가운데서

살기 위한 그 사람의 영적인 재탄생을 상징한다. 침례를 받으면, 옛 삶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확인을 받으면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된다.

침례는 또한 성스러운 성약, 즉 하나님 아버지와 침례받은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을 포함한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성약을 맺는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며]”(모사이야서 18:10)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구주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마태복음 3:13~17 참조) 침례받으심으로써 계명을 지키셨다. 그분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니파이후서 31:5~9 참조) 침례받으셨다. 따라서 침례받은 사람은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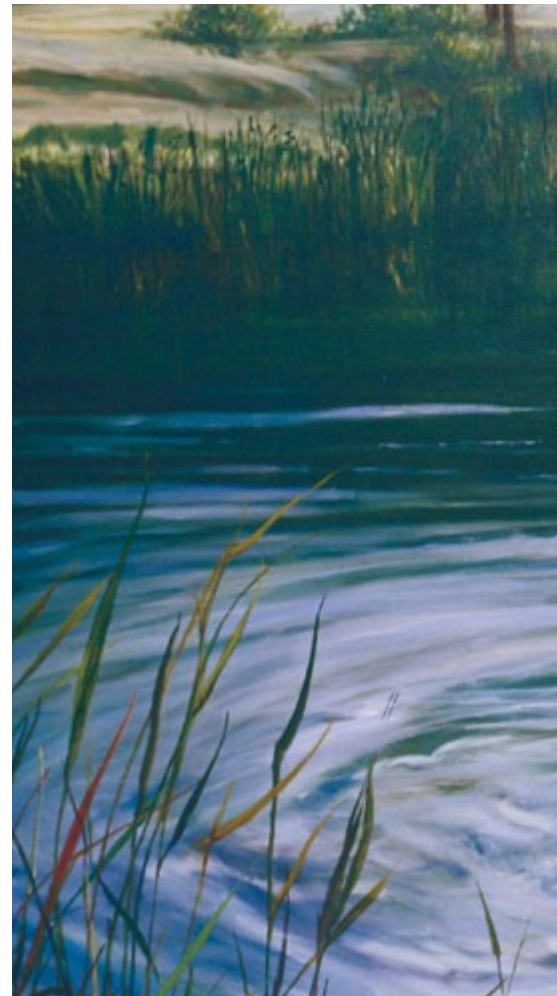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2장을 참조한다.*

성약

엘 톰 페리 장로

“침례[는] ……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묶어 주는 성스러운 성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평화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모사이야서 18:10) 그분의 성도들을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구속하시며,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게 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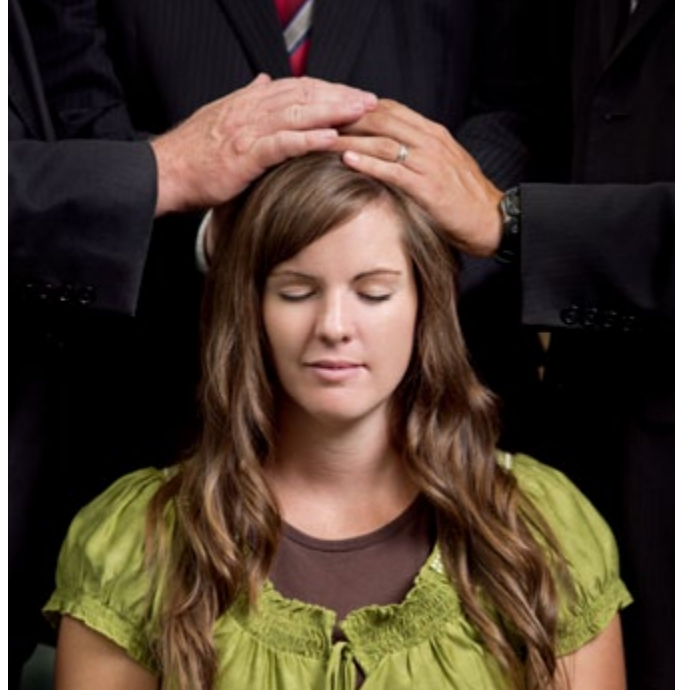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46쪽.



침례받은 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침례와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 사함”(교리와 성약 33:11)을 포함해 우리 삶에 영적인 정확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침례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함을] 교회 앞에 증거”(교리와 성약 20:37)해야 한다.

“우리는 침수로써의 침례[를] …… 믿는다.”(신앙개조 제4조)



에수 그리스도를 침례하는 침례 요한, 그랜트 뎀니 클로슨 © FR, 복사 금지, 사진 출처: 스킵 데이비스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에베소서 2:19)이 된다.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로 버트 볼트의 희곡 *사계절의 사나이*는 토마스 모어 경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학자, 변호사, 대사, 영국의 대법관으로서 존경받았습니다. 모어 경은 온전한 고결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 희곡은 리차드 리치 경의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없도다! …… 돈이나 유희도 그러하도다. 명성, 여자, 세상적인 것, 모든 게 다 돈으로 살 수 있도다!”¹

이것이 바로 이 희곡의 주제이며, 이것은 또한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결성을 값으로 매길 수 없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고결성

고결성은 결과와 불편함에 개의치 않고 옳은 것을 행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있습니까?

이 희곡에서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혼을 금한 것입니다. 뜻을 굽히지 않은 헨리 8세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이혼을 지지해 줄 서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있습니다.

평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토마스 모어 경이 지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서약에 서명하는 것을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개인적으로 부탁했어도 서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자 시련이 닥칩니다. 친구들이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압력까지 행사했지만, 모어 경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부와 지위, 가족을 다 뺏기면서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부당하게 재판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기초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어 경의 돈, 정치 권력, 친구, 가족을 알아갔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어 경의 고결성은 빼앗지 못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극은 토마스 모어 경이 반역이란 부당한 누명을 쓰고 재판 받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리차드 리치 경은 모어 경에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위증을 합니다. 리차드 경이 법정을 퇴장할 때 토마스 모어 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걸고 있는 건 짐무실 열쇠이군. …… 어떤 열쇠인가?”

검사인 토마스 크롬웰은 이렇게 답합니다. “리차드 경이 웨일스의 법무총감으로 임명되었소.”

그러자 모어 경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리치 경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날카롭게 응수합니다. “웨일스라고? 리차드,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사람에게 너무 빈약한 보상이군. …… 고작 웨일스라니!”²

다음 생에서 많은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내가 웨일스, 즉 부질없는 육체적 쾌락, 명성, 점수, 친구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을 팔아 버렸던가? 왜 내 고결성을 돈을 받고 팔아 버렸던가!”

고결성의 원리

저는 고결성의 일곱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 이 구주의 속성이 우리 삶에서 근간이 되는 특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고결성은 우리의 성품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입니다.**
1853년, 성도들은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힘든 2년간의 세월동안 성도들은 2.4미터 이상 땅을 파서 사암으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브리검 영 회장님에게 와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사암으로 된 기초에 균열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검 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균열을 매우고 성전을 그 무게와 웅장함을 줄여서 건립할 것인지 (2) 2년 동안 수고하여 작업한 기초를 걷어 내고 하나님이 보여 주신 훌륭한 성전을 지탱할 수 있는 화강암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영 회장님은 후자를 택하셨습니다.³



고결성은 성품의 기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에 균열이 간다면, 그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다른 성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고결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정직하게 거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애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감독님께 진실의 일부만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미덕의 근원은 고결성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시 에스 루이스는 우리가 수학 방정식에서 실수를 하면 계속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을 잘못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수록 더 빨리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⁴

마찬가지로, 고결성을 우리 삶의 화강암 기초로 만들지 않고서는 다른 그리스도와 같은 덕을 온전하게 갖출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기만이라는 기존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고 고결성이란 기초로 하나씩 다시 쌓아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2. **고결성은 합법적인 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일, 그리스도 같은 일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간통, 혼전 성관계, 험담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닐지 모르나 그것은 모두 도덕적이거나



고결성을 우리 삶의 화강암 기초로 만들지 않고서는 다른 그리스도와 같은 덕을 온전하게 갖출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기만이라는 기존의 기초를 허물어버리고 고결성이란 기초로 하나씩 다시 쌓아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은 아닙니다. 고결성은 단지 법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표준도 따르는 것입니다. 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의 본성 중 상대적으로 더 선한 천사”를 따라 생활하자고 제안한 것보다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젊은 남성은 데이트 상대자의 정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모든 젊은 여성도 마찬가지로 데이트 상대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결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고결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감정의 강한 열정조차 넘어서는 확고함과 자제력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부도덕한 온갖 술수를 쓰더라도 그들을 지지하고 힘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 다른 이들에 대한 고결성입니다. 이 세대에게 주님은 “내가 …… 의롭게 나를 섬길 순결한 백성을 일으킬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0: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몇 해 전에 동업자와 저는 한 직원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상의를 한 후 우리는 그의 수고를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가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협상 중에 우리의 관계는 경색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공정했다고 합리화하며 떨쳐버리려 했으나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정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 가장 높은 도덕적 표준을 지키는 것은 고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 고결성이란 영원한 결과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와드의 한 청년이 그 지역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친구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었고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그 친구는 어깨를 으쓱이며 입모양으로 “성적을 올려야 한단 말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어린 소녀는 성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인 신성이라는 영원한 비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일류 대학에 입학하게 되들, 우리의 승명을 박탈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부정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생득권을 팔죽 한 그릇과 바꾸는 것입니다.(창세기 25:29~34 참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부정행위를 한 그 사람은 앞으로 올 삶에서 무한한 부 대신 현재의 푼돈을 택한 것입니다.

한 실망한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부도덕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의 딸이 결혼 석 달 전에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청산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스테이크 회장님도 성전 추천서를 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고결성은 근시안적이거나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원히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본성을 바꾸게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3:19, 강조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면에 그분의 신성과 닮은 속성이 있으며, 속죄를 통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즉 완벽한 고결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본성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첨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면에 그분의 신성과 닮은 속성이 있으며, 속죄를 통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즉 완벽한 고결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본성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4. 고결성은 다른 것도 아닌 진리 그 자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하려는 소망과 노력을 보인다면, 주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용납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선교부 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몇 명이 불순종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교부 회장님과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선교사 몇 명과 접견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교부 회장님은 지역 회의를 고결성에 대한 훌륭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주제에 대해 더 말씀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좀 더 접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완벽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받을 때에만 진실을 말하는 그런 게임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이 충만했으며, 전날 밤 접견했던 그 네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는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모래로 된 기초를 고결성이라는 화강암 기초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5. 고결성에는 알리바이나 변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변명이나 알리바이

없이 비난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에다 여러 번,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약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셉 스미스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은 또한 그가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는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결성은 첫번째 시현이나 모로나이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그를 신뢰할 수 있으며 그의 모든 말을 믿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조셉 스미스는 참으로 고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 고결성은 불편할 때에도 우리의 성약과 다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결성은 결과와 불편함에 개의치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입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엔 엘든 태너(1898~1982) 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일정액을 지불하겠다고 어떤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빚을 진 상태라 그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 돈을 지불하면 집을 잃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십시오.’

‘집을 잃으면서까지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약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내는 자신의 성약이나 약속은 지키지는 않는 남편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자신이 한 언약, 성약을 지키기 위해 월세로 사는 남편을 택할 것입니다.’⁶⁶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러면 꼭 밤이 낮을 따르듯
남에게도 거짓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⁸

이 얼마나 훌륭한 권고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 삶을 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과 동료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배우자, 혹은 감독님 앞에서 외설물을 보시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들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께 충실한 고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던 아니건 간에 옳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좌우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고결성에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다.”라는 표를 붙이십시오. 그래서 하이럼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는 복이 있다. 이는 그의 마음이 고결하므로 …… 나 주가 그를 사랑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24:15)라는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결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해야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이 정직하며 ……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자[는] …… 내게 받아들여지느니라.”(교리와 성약 97:8; 강조체 첨가)

고결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1년 12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Robert Bolt, *A Man for All Seasons: A Play of Sir Thomas More* (1960), 2.
2. Bolt, *A Man for All Seasons*, 95.
3. 리차드 나이젤 홀잡펠, “모든 창문, 모든 뾰족탑이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의 빛*, 1993년 11월호, 9쪽.
4. C. S. Lewis, *Mere Christianity* (1960), 22.
5. Abraham Lincoln, first inaugural address, Mar. 4, 1861.
6. N. Eldon Tanner, in Conference Report, Oct. 1966, 99.
7. Marion D. Hanks, in Conference Report, Oct. 1968, 116.
8. William Shakespeare, *Hamlet*, ed. W. J. Craig (1914), act 1, scene 3, lines 85-87.

그는 집이나 고결성이냐를 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고결한 사람은 고결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고결성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 약속을 하고서 이루지 아니하였느냐?’(교리와 성약 58:31)

고결성을 가장 혹독하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한 약속과 다짐을 지키느냐, 혹은 우리가 한 말을 이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7. 고결성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고결성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 동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칠십인이었던 매리온 디 행크스(1921~2011) 장로님은 “저 멀리 시골길가의 옥수수밭에서 멈추어서” 울타리 너머 맛있게 영근 옥수수를 보던 한 남자와 그의 어린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앞과 뒤, 오른쪽, 왼쪽을 둘러본 후 “울타리를 타고 넘어” 옥수수를 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는 책망하는 말투로 “아빠, 위를 쳐다보는 걸 잊으셨네요.”⁷라고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서 폴로니어스가 그의 아들 라에르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
했던 한 바쁜 어머니는
밖이 아닌 자신의 가정
안에서 봉사할 기회가
많음을 깨달았다.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제자가 되어

멜리사 메릴

앨 마는 물몬의 물에서 침례 성약을 설명하면서 침례 성약에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모사이야서 18:9)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지금도 구주의 제자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표준이다. 또한 매주 성찬을 들 때 교회 회원들은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교리와 성약 20:77)고 약속하며 그 성약을 새롭게 한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교회 잡지는 전 세계 후기 성도들에게 “제자 되기 실험”에 동참해 줄 것을 권했다. 즉, 일주일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혹은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속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며, 구주의 삶과 가르침을 온 마음을 다해 공부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어느 때에나” 그분을 따르게 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어느 때에나 제자가 되어

미국 유타에 사는 카라 라스지키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또 더더욱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소망하며 그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 하지만 내성적인 자신의 성격이 다소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혼자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저 자신이 혹은 구주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라스지키 자매는 누가복음 7장을 일주일간 공부하며 실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주께서 사람들을 돌보시는 내용 덕분에 자신의 동기를 재고해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내 행동은 과연 구주처럼 되고 사람들을 돌보려는 진정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항목을 하나씩 지우며 할 일을 마쳤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인가? 나는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는가? 사람들의 복리인가? 아니면 내 행동에 대한 타인의 생각인가?”

그녀는 구주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분이 하셨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편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 누군가 그녀를 필요로 할 때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제자가 되는 도전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때 우리는 신성한 길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겐세마네를 통해 인도됩니다. 따라서 만약 구주께서 부당함, 낙담, 박해, 불의, 고통을 겪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로서 충실히 따르는 자라고 여전히 불리기를 원하면서 그 같은 일을 겪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Elder Jeffrey R. Holland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Lessons from Liberty Jail,” *Ensign*, Sept. 2009, 31.

“제자가 되는 건 수동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죠. 타인을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데 희생하는 시간과 힘, 수단은 우리를 구주께 더 가까워지게 하죠.” 그리고 그녀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모사이야서 4:27 참조)하거나 그분의 도움 없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해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기에 용기가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알게 된 라스지키 자매는 예전에는 하기 어려워하던 금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지식은 또한 더 많은 방면에서 변화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자원 봉사 지원서가 날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먼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더 좋은 방문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역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내가 시간이 있나?’, ‘그 일을 하면 어떤 영향을 받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는 구주가 필요해요.”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하지만 주님 역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일으키게 해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멕시코 치와와에 사는 프랜시스코 사무엘 카브레라 페레스는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열여섯 살 때 침례 받은 후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주의 삶을 공부하는 그 실험에 참여하면서 그는 제자가 되는 일을 이론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카브레라 형제는 구주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칭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 27~63절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찾는 성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저는 늘 한두 가지 ‘이유’(핑계)를 대며 의무를 미루려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조금 있다가” 혹은 “내일” 혹은 “서두를 필요는 없어.”라는 생각이 “내가족과 경제적, 사회적, 무엇보다도 영원한 진보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한 다음에 구주를 따른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거의 제자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구주의 결심을 읽었을 때, 카브레라 형제의 결심도 확고해졌고,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는 데”(모사이야서 3:19) 도움이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성신의 뜻을 따르고, 속죄의 힘을 통해 성도가 되려고 했습니다.” 카브레라 형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발전시켜야 했어요. 이를테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모사이야서 3:19 참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려고 꾸준히 노력했을 때 카브레라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족, 지도자,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업무 성과도 발전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일을 할 때 힘들어하는 대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명에가 쉽고 그분의 짐이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마태복음 11:30 참조) 카브레라 형제는 말한다. “그게 바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죠. 지금과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무슨 일이나 제자가 되어

나이지리아에 사는 15세 소녀 치오마 엔은 순종심을 더 키우고 싶어서 요한복음 7장과 제3니파이 14장을 공부했다. 치오마는 “싫어하는 일, 특히 피곤할 때 부엌을 정리하는 일”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치오마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며, 순종이 그러한 사랑을 보여 주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요한복음 14:15 참조)

순종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읽으면서, 치오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배도할 것임을 아셨기에, 우리를 험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게 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배웠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모두 완전을 향해 노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치오마는 학교에서 자신의 차례가 아니었음에도 교실 바닥을 쓸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순종심을 보이는 기회로 삼았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실을 쓸라는 성신의 속삭임을 느껴서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놀라워했죠. 그 일로 사람들은 이제 저를 겸손하고 순종적인 학생으로 생각해요. 저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주 내내 행복했어요.”

그린란드 출신인 미셸 킬만 한센은 현재 덴마크에 산다. 두 지역 모두 “친절을 보이고 도움을 주는” 문화가 정착된 곳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여러 면에서 그녀가 살았던 곳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두 명의 비회원 룸메이트를 포함해서 친구들이 종종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성전 참여, 경전 공부, 매달 하는 금식 등의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나쁜 미디어, 저속한 말, 다른 부정적인 외부 영향력에 직면했을 때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러한 영향력 탓에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센 자매는 도덕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청년 성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하기 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 하지만 직면하는 상황이 때때로 복잡할지라도 경전은 간단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경전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무심결에 아침과 저녁에 공부했던 것을 찾게 되었어요. [구주]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니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분의 생애를 공부할 때마다 구주처럼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면서 그런 배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자주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어느 곳에서나 제자가 되어

미국 인디애나에서 네 아이를 키우며 사는 스테이시 화이트는 한 주 동안 마태복음 25장 35~40절을 공부하면서 이웃과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기회를 갈구하게 되었다. 그 구절에는 구주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실제로 그분에게 봉사하는 것(40절)이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나온다.

“어린 네 아이를 둔, 너무나 바쁜 주부이기에 때때로 원하는 만큼 자주 봉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죠.”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족 돌보기도 너무 바빠서 다른 일들은 엄두도 못내죠.”

화이트 자매가 계속 연구하고, 구절을 전후참조하고,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며, 봉사할 기회를 찾으려 기도했을 때 “그 주에 엄마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화이트 자매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도와줘야 할 아이들 학교 숙제, 평소보다 더 많이 어질러진 집, 아이들끼리 다투고는 엄마에게 시비를 가려 달라는 일과,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 등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았죠. 남편과 아이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시간과 힘을

간구했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주를 보내며 화이트 자매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바로, 가정 밖에서 봉사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또 자신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주님은 가정 안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으로써 제 기도에 정말 응답하셨어요. 때때로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꼈고 봉사는 집 밖에서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침대 정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는 등 엄마로서 매일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일이 그다지 지루해 보이지도 않았죠. 제가 봉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가족을 위해 말이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디마 이바노프는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서 “제자 되기 실험”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바노프 형제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일과 관련한 책임들이 너무나 많아서, 권유를 받았을 때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다고 한다.

하지만 그 실험에 동참하기로 결심했고, 그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사의 지시나 권고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었기에 마태복음 5장과 제3니파이 12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깊이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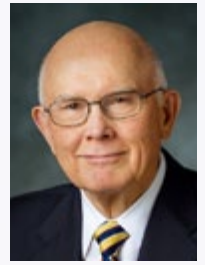
이바노프 형제는 산상수훈의 특성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구주께서 스스로 겸손해진 이들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더서 12:27 참조)이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이바노프 형제는 발전할 기회를 모색하며 구주를 찾았다.

이바노프 형제는 이렇게 보고했다. “구주를 더 가깝게 느꼈어요. 그분이 위대한 교사라는 것과 그분처럼 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분의 생애를 공부할 때마다 구주처럼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면서 그런 배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하죠.”

이바노프 형제는 그 주 동안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구주를 따르는 것은 복음 원리나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는 진정한 소망과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다. ■

멜리사 메릴은 미국 아이다호 주에 산다.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

진리의 존재와 본질은 현세의 가장 중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믿지 않는 자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요한복음 18:37~38) 그 일이 있기 전에 구주께서는 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계시에서 그분은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교리와 성약 93:24)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옳고 그름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확고부동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악이 존재하며, 어떤 일들은 단순히, 심각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릇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대규모 절도와 사기 사건을 다룬 충격적인 보도를 접할 때면, 이 사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는 도덕적 진공 상태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폭동과 약탈과 기만 행위에 사람들은 서구 사회가 유대교와 기독교적 유산으로부터 받은 도덕적 기초를 잃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¹

도덕적 토대를 염려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란 없다는 믿음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위에 관한 모든 규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의 선택권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우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 옳고 그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도덕적 상대주의 철학은 미국과 여러 서구

어떤 행동에 대해 관용을 보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관용 또는 존중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다른 한 면에는 항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대규모 절도와 사기 사건을 다룬 충격적인 보도를 접할 때면, 이 사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는 도덕적 진공 상태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폭동과 약탈과 기만 행위에 사람들은 서구 사회가 유대교와 기독교적 유산으로부터 받은 도덕적 기초를 잃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¹

사회에서 많은 이에게 비공식적인 신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어났고 치부로 여겨 뒀으려 했던 악행들이 이제는 합법화되고 대형 광고처럼 당당하게 행해집니다.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철학에 설복되어 자기 만족적인 쾌락을 좇고 외설물, 부정직, 상스러운 말, 몸이 비치는 옷, 신체 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거나 추잡한 성적 탐닉을 하는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 입법자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옳고 진실한 행위와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² 이 시대를 예견한 성경과 물몬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디모데후서 3:4)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유다서



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이나 견해에
대해, 관용과
존중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1:4; 니파이후서 28:5; 모로나이서 7:17; 교리와 성약 29:22 참조)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에 수반되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인 진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덕관념이 허물어져 가는 이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특히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주신 계명으로 확립된 확고부동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와 대학에서 많은 교사가 상대적인 도덕성을 가르치고 실천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미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들은 사회에 나가 우리 자녀의 교사가 되며 언론과 대중 매체를 통해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상대주의 철학은 믿음을 지키는 수백만 기독교인과 유대교도, 이슬람교도들이 확고한 근간으로 여기는 것들을 부인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태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취해야 하는가가 바로 제 말씀에서 짝을 이루는 두 번째 주제,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친숙하지 않은 의견이나 관행에, 또는 그런 의견을 취하거나 실천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교통 및 의사소통 기술로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관용은 더욱더 필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다양성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기 다르다는 훌륭한 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와 가치관의 다양성은 그중 어떤 것이 우리 복음 문화와 가치관에 맞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 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갈등을 빚는 잠재적 원인이 되며, 그렇기에 우리는 관용의 본질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이고, 관용을 보여야 할 때는 언제이며, 그렇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적 진리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보다 이 질문에 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 도덕 기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에 관용을 보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는 신성모독이나 불경스러운 말 중에 듣고 넘길 만한 것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도덕적 문제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매우 폭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용인됩니다. 신념이 그렇다면 거의 모든 행동,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덕적 상대주의를 믿는 사람 중 몇몇은 인간에게는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며 지켜야 할 명백하고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머물며 누룩이 되라는 명을 받았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세 가지 확고한 진리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아니라도 믿는 자들에게 관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용을 보이는 일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특히 어렵습니까? 세 가지 절대적 진리에서 출발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자들 대부분이 이런 믿음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형제자매이며,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종교는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1910~2008)은 후기 성도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종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설혹 하나님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류라는 거대한 가족의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믿는 교리나 철학과 관계없이 서로에 대한 존중심과 넓은 아량, 관용의 태도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³

힝클리 회장님이 관용과 더불어 “상호 존중”에 대해서도 말씀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것은 이 시대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절대적 진리를 말씀드리건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13:33 참조) 누룩, 즉 효모는 전체가 발효되어 부풀기 전까지는 커다란 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발효는 그 자체의 영향력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구주는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며(요한복음 16:33 참조) 그 수가 적고 그들의 다스림이 작을 것이고(니파이전서 14:12 참조)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요한복음 17:14 참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이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우리가 받아들인 성약의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머물며 누룩이 되라는 명을 받았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도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에 기초해 이를 주장합니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정부의 감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하나님과 또한 서로 간에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기독교인들은 “화평[을] …… 세우는 일을 힘쓰[며]”(로마서 14:19)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로마서 12:18)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과 견해와 관습을 접할 때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고 또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 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모로나아서 7:12~14)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관용과 존중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 관용과 존중심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향한 결심과 우리가 맺은 성약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세 번째 확고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된 것 사이의 전쟁에서 싸워야 할 용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이나 견해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관용과 존중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행동에 대한 관용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옹호할 권리를 포함해 다른 사람과 그들의 믿음에는 마땅히 관용과 존중심을 보여야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까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 우리는 그릇된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도 대부분의 극단적인 행동은 잘못이며,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덜 극단적인 행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행동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 그런 행위들은 어떤 성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용을 보여야 하는지 규정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한 사례 깊은 후기 성도 여성은 다음과 같은 염려가 담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말을 사악한 생활 방식을 용인한다는 뜻과 점점 더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관용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⁵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되지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기독교인들은 “화평[을] …… 세우는 일을 힘쓰[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않습니다. 관용은 그것을 베푸는 대상과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미덕이 됩니다. …… 관용을 요구받을 때는 많지만 되돌려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불안정한 미덕입니다.”⁶

이 영감에 찬 경고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해 관용을 보이는 것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관용 또는 존중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다른 한 면에는 항상 진리가 있습니다. 이 양면을 모두 인식하지 않고는 관용이라는 동전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위안의 말씀으로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여인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 우리는 모두 대화할 때 친절하게, 그러나 진리는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관용과 진리를 동시에 말한 이 예를 통해 교화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례 깊은 후기 성도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것을 자주 듣고 있으며, 아는 사람 중에는 남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쓸모없는 과거의 관습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약을 지켜 증인으로서 굳건히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⁷

먼저, 개인적인 실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 즉 신성모독, 동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외 여러 가지 상황에 때로 상호 대립하는 진리와 관용의 요구를 적용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리의 요구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계명과 성약을 지켜야 하며, 잘못에 빠질 때에는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죄의 얼굴은 종종 관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마음의 고통과 불행, 아픔이 있습니다.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하도록 강요할 때, 비록 혼자일지언정, 여러분은 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⁸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르칠 의무가 있는 우리 자녀와 그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리에 관한 우리의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노력은 오직 상대방의 선택의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기에 늘 사랑과 인내와 설득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 사람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 또는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을 때 우리가 이행해야 할 진리와 관용의 의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의 의무란 이와 같은 행위들, 또는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행동들 가운데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는 말을 내뱉는다가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의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 사항과 축복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에베소서 4:15, 25) 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 편에 서고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민감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진리를 말해 줄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말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서 신성모독을 계속 일삼는다면, 그런 말이 듣기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없는 곳에서 신성모독을 하면 꼭 그들에게 맞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동거는 그 상황이 어떻든 후기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죄입니다. 주위에 동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용인하고 돌봐주거나 편의를 봐 주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 할 때, 그 행위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에는 관용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거 행위에 직접 관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진리에 대한 의무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즉, 그것이 타인의 개인적인 일일 때는 심각한 죄라 해도 무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동거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한다면 하는 식으로 원조를 부탁받거나 그러한 관계를 암묵적으로라도 지지하게 될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성찬을 취하는 것을

자의 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할 권리를
포함해 다른 사람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마땅히 관용과
존중심을 보여야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까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롯해 안식일을 지켜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한 주 동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후에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에게, 비록 이런 기본적인 신념을 다르게 정의하더라도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공통된 견해를 취한다는 사실을 들어 공감을 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분쟁을 피해야 하며(제3니파이



우리 모두는, 대화할 때는 친절하게 그러나 진리는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관용과 진리를 동시에 말한 이 예를 통해 교화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11:29~30 참조) 우리의 모범과 전도가 “부드럽고 온유한 경교의 음성”(교리와 성약 38:41) 되어야 한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웃이나 동료가 그런 일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 궁극적 결과를 지레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주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공개 토론의 원리

믿는 자들이 공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법의 제정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에는 다른 원리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께 영감을 구하여 어떤 원리들이 법이나 행정 조치로 장려되도록 해야 할지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이나 행정 조치를 이용해 믿는 자들에게만 고유한 어떤 믿음 행위를 장려하는 일, 예를 들어 예배 활동을 법으로 시행한다든지 하는 일은, 비록 그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삼가야 합니다. 공중 보건, 치안, 도덕 등에 관련된 법률로 단순히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삼가야 하지만, 더 넓은 의미의 원리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의 조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의 수호자로서 종교적 자유를 보전하기 위한 법을 추구할 수 있으며, 추구해야 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지배적 물결과 더불어 미국은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대중의 신념이 불안하게 쇠퇴하는 판국을 맞았습니다. 한때 미국인에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던 종교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의심받습니다.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은 심지어 종교 원리를 실천하고 전파할 권리를 비롯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헌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집니다.

이 문제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확립하신 절대자를 믿는 우리가 단합하여 오랫동안 이어져

온 헌법상의 종교 활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적 문제에 관해 우리의 의식을 투표로 발언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공개 토론회와 정의의 전당에서 견해를 피력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어떠한 믿음이든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옹호하고 실천할 자유를 굳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며, 우리는 우리의 특유한 믿음에 따라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각각의 길을 추구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믿는 자들이 공개 토론회에서 입장을 피력하려 할 때,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입장에 대해 항상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늘 사랑을 지니고 말하며 대답하는 입장에 대해

인내심과 이해심과 동정심을 보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누가복음 10:27 참조), 용서하며(마태복음18:21~35 참조),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는 구주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믿는 자들은 도덕성을 법률화하려 한다는 귀에

또 한 믿는 자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어떠한 믿음이든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옹호하고
실천할 자유를 굳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익은 비난 때문에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의 많은 영역이 유대교와 기독교적 도덕성에 기초하며, 수 세기 동안 그래 왔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는 도덕성에 근간을 두며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2대 미국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오직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기에는 전적으로 부적합하다.”⁹

넷째, 믿는 자들은 자신의 종교가 요구하는 일들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적 조항이나 정책을 유지하는 법률을 추구하는 일에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조항과 정책들은 공중 보건, 치안, 시민 윤리에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중 많은 부분과 가족법 중 일부가 종교적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그런 법들은 민주 사회에서 오랜 역사에 걸쳐 그 타당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다수인 곳은 항상 소수 의견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1910~2008)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타 종교 사람들에게 다가갑시다. 선한 이웃, 친절하고 관대하며 자애로운 이웃이 됩시다. 지역 사회에서 하는 훌륭한 활동에 참여합시다.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우리 뜻을 굽힐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무례하지 않게, 공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진지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격의 문제보다는 원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¹⁰

망대 위의 파수꾼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역할 중 하나가 이스라엘에 경고하는 “파수꾼”이라고 가르칩니다.(에스겔 3:17; 33:7 참조) 주님께서는 현대의 시온을 위해 계시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추가하셨습니다.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 파수꾼이 “원수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원수를 [볼 것이며] 미리 경고하여 “떨하는 자의 손에서 나의 포도원을 구할 수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101:45, 54)

저는 그 파수꾼 가운데 한 명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저의 지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손을 내밀어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분이 주는 화평을 받으라고 권유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교리와 성약 19:23 참조) ■

2011년 9월 11일에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에서 전한 영적 말씀. 영어 전문은 mormonnewsroom.org/article/-truth-and-tolerance-elder-dallin-h-oaks에서 볼 수 있다.

주

1. “Is US a Nation of Liars? Casey Anthony Isn't the Only One,”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19, 2011, 20; “Anarchy in the UK,” *The Economist*, Aug. 13, 2011, 144.
2. Joseph G. Donders, ed., *John Paul II: The Encyclicals in Everyday Language* (2005), 212-13 참조; 또한 Rabbi Harold Kushner, *Who Needs God* (2002), 78 참조.
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665.
4. Eric Rassbach, quoted in William McGurn, “Religion and the Cult of Tolerance,” *Wall Street Journal*, Aug. 16, 2011, A11.
5. 앨런 에이치 옥스에게 온 편지, 1998년 5월 14일자.
6. Boyd K. Packer, “Be Not Afraid”(2008년 11월 16일에 옥든 종교 교육원에서 전한 말씀), 5; 또한 Bruce D. Porter, “Defending the Family in a Troubled World,” *Ensign*, June 2011, 12-18 참조.
7. 앨런 에이치 옥스에게 온 편지, 1987년 12월 22일자.
8.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5쪽.
9. Charles Francis Adams, ed., *The Works of John Adams, Seco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0 vols. (1850-56), 9:229.
10.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131.

거짓말의 유혹

나 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집회소는 우리 교회를 아예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하는 교장이 있는 학교와 가까웠다. 그 교장은 한 교사가 후기 성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해고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교회 회원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려 하자 일언지하에 거절한 일도 있었다.

실험 및 의료 기자재 판매원인

나는 종종 여러 학교와 병원을 다니며 물건을 판매한다. 어느 달에는 실적이 저조했던지라 그 학교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내 계획은 물건만 팔고 떠나자는 것이었다. 그 교장이 내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모르기를 바란 채 말이다. 하지만 영은 내게 그 교장이 나의 종교에 대해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 학교 과학부서장과의 일은 잘

그 교장은 제발 묻지 말았으면 하고 기도했던, “어떤 종파에 소속되어 있죠?”라는 질문을 했다.

마무리되었고, 그는 물건값을 주기 위해 나를 교장실로 데려갔다. 교장이 수표에 서명하려는데, 그녀가 나에게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사적인 질문을 받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바로 그 교장은 내가 제발 묻지 말았으면 하고 기도했던, “어떤 종파에 소속되어 있죠?”라는 질문을 했다.

거러를 성사시켜야 했던 나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챙겨서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초기 성도들은 내 신앙을 시험하는 이 작은 시련에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가!

용기를 다시 내어 나는 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간증을 나누었다. 놀랍게도 그 교장은 웃으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며 수표를 건넸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런 구절이 떠올랐다. “이제 이 일이 신앙 안에 굳게 선 자들에게는 큰 시험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그들 위에 임하는 핍박을 인내로써 견디었더라.”(앨마서 1:25)

나는 하나님 아버지나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기뻐다. 이 경험으로 나는 언제나 훌륭한 판매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훌륭하게 대표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

아테로그바 아더레미, 나이지리아



비축의 축복

아 내 브리트니와 나는 신혼 때 비축용 음식을 사들였다. 신혼 때 몇 달 동안 우리는 장 보러 갈 때마다 몇 가지 비축할 만한 물품들을 샀다. 한 번에 조금씩 더해 가면서 식품 비축을 꽤 잘 해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 필요할지는 몰랐지만, 비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내 대학원 진학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해야 했고, 비축품도 가지고 갔다.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집세를 내느라 저축한 돈을 모두 써 버렸고 아내는 교생인지라 수입이 없었다. 우리는 내 대학원 조교 월급으로 살았으나 매우 빠듯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보내는 두 번째 밤에 우리의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내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깨어났고 몇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 아내는 다음날 맹장 수술을 받았다.

아내가 회복한 후에 남은 돈을 계산해 보았다.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 비용을 포함해 다음 몇 달간 들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여전히 빚을 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한 달 식비가 25달러를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예전 식비의 1/4 정도였다.

작년에 비축해 둔 식품들이 귀중히 쓰였다. 비축 식품은 몇 달 동안 우리의 기본 생활을 연명하는 데 충분했고, 25달러로는 우유와 다른 신선 식품을 살 수 있었다. 비싼 음식은 먹지 못했으나 굶는 일은 없었다.

알뜰하게 살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자 더 많은 축복이 왔다. 학위를 받은 한 학생이 자신의 가족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했다. 그는 자기 집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친절함 덕분에 우리는 이제 비축 식량에 고기를 더할 수 있었다.

주님은 우리가 비축을 하고 십일조를 내며 기꺼이 봉사하려고 하자 축복을 내려 주셨다. 빚을 지지 않고도 몇 달을 버틸 수 있었다. 그 학기가 지난

후 아내는 전임 교사가 되었고, 우리는 식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비축 식량을 늘려 갔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기에 우리는 계속 축복을 받았다. ■

브루스 리차즈, 미국 일리노이 주

주님은 우리가 비축을 하고 십일조를 내며 기꺼이 봉사하려고 하자 축복을 내려 주셨다.



그들과 함께했다

우리는 많은 후기 성도들이 사는 대도시에서 인구 오천 명 남짓한 미국 남부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7년 이상을 살았다. 이사 첫날, 철물점에서 나오는데 십 대 점원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랜트 아주머니.”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니?”라고 물었다.

점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머니와 아주머니네 식구들만 이 마을에서 새로운 얼굴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은 개신교 교회 구역마다 있는 지역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후기 성도 집회소는 차로 45분이나 떨어져 있었다. 일요일마다, 그리고 주중에 몇 번씩, 우리는 집회소까지 먼 거리를 가야 했다. 7년간 남편은 감독단에서, 나는 초등학교 청녀 회장으로 봉사했다.

우리는 사교 생활과 그 조그만 마을의 사회적 기반이 그 지역의 교회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에 소속되려면 교회들의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어린 세 자녀는 와드 아이들과도 친했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이웃과도 유대감을 느끼기를 바랐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중에 지역 교회가 여는 활동들, 이를 테면 한 교회에서 여는 수요일 저녁 가족 식사 같은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했다.

우리는 아들과 두 딸을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참여시켰다. 근처 교회에서 여는 여름 성경 학교에도 참여했다. 두 딸은 지역 교회 청소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딸 하나는

그 합창단에서 독창을 하기도 했다. 우리 아들은 지역 교회 청소년 그룹에 참여했다.

종종 방문했던 부흥회 목사들이 “몰몬”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설교했지만, 이웃들은 우리가 그 목사들이 경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매년 여름, 한 개신교 종파의 교회에서는 조지아 주 성 시몬스 섬에서 열리는 청소년 캠프를 후원했다. 그 캠프 후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올해 여름에 그 캠프에 간 유일한 청소년은 우리의 선한 몰몬 신자인 켈리 그랜트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사교 생활과 그 조그만 마을의 사회적 기반이 그 지역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을에 소속되려면 그 지역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그 지침이 내게도 적용되는 걸까?

우리가 개신교 이웃들을 받아들이자 그들도 우리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표준이나 원리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회복된 교회에 대한 그들의 간증도 커져 갔다. 다른 교회의 성경 이야기에서 배운 것은 성경과 몰몬경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권의 중요한 역할을 배우고, 그 차이까지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남편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로 전근을 가게 됐다. 나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서명한 계약서를 넘기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변호사는 나를 안아 주며 부드럽게 “어느 누구도 이곳에 몰몬이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라고 말해 주었다.

작은 개신교 마을에서 했던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은 관용과 인내, 이해를 배울 수 있었다. 다른 종파 사람들에게도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아이들이 교회의 대표자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성신, 신권, 우리 모두를 향한 구주의 큰 사랑이 지닌 가치에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아무도 개종시키지는 못했지만, 씨앗은 심었다. 그 조그만 마을 사람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그들 삶의 일부가 되었기에, 나는 그들도 축복을 받았기를 바란다. ■

낸시 그랜트, 미국 조지아 주

단 정하게 옷을 입을 건 늘 쉬웠다. 높은 표준을 지향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성전 결혼 때 내 가먼트를 보며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수영복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먼트 지침은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누군가 본다면 분명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수영복을 입고 싶어 했다.

남편과 나는 우리 둘만을 위한 유람선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 수영복을 입기에 제격인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을 것 같았다. 누구도 내가 후기 성도인 줄 모를 것이고 유람선에 탄 다른 모든 여자들도 대부분 나처럼 입을 테니 말이다.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단정한 수영복을 입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정함의 기준은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나? 하지만 계속 맴도는 느낌을 지워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성전 결혼을 했다. 합당하게 생활하며 합당한 남편을 찾겠다는 목표를 이뤘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었다.

나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복장과 외모” 편을 보기로 했다. 그 책자를 본 지 꽤 오래되었기에 다음 말들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복장과 외모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2011], 6쪽)

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기꺼이 진실하게 행동하려는가?(모사이야서 18:9 참조)

나는 20대 후반이었지만, 청소년 때 배운 원리들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 원리들은 틀림없이 여전히 내게 적용되는 것이다.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싶다. 자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

줄리 레트너, 미국 애리조나 주

나는 이미 결혼했기에 단정한 수영복을 입어야 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때에 적용되는 표준

옳고 그름 사이에서 선택하는 순간, 이 다섯 명의 청년 성인들에게 몰몬경에 나오는 순종의 모범이 어떻게 인도가 되었는지를 소개한다.

로리 풀러

복음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그른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도록 배웠다. 우리는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며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고, 옳은 선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준다고 배운다. 십 대 때 우리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받는데, 거기에는 복음대로 사는 삶의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요한복음 17:14 참조) 힘겹게 애쓰는 청년 성인들에게 선택과 표준이 흐려질 때도 생긴다. 옳고 그름 사이에 넓고 막연한 지대, 즉 선택하기에 너무 방대한 중립 지대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선택이 점차 어려울 수 있지만, 똑같은 표준은 우리가 어릴 때나 커서나 똑같이 적용된다. 순종의 원리는 항상 같다. 지금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결정을 내릴 순간에,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된 몰몬경에 나오는 원리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며,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은 최고의 순종심을 보일 때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 기사는 다섯 명의 청년 성인들이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순종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앨마서 22:15, 18)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라모나이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했다. 하나님의 표준을 알게 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 표준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다른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과 함께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으며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다.]”(앨마서 23:6)

순종의 원리는 오늘날 청년 독신들의 삶에도 적용된다. 인도에 사는 비제이 파사는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신앙, 행복, 사랑, 낙천적인 마음이 듭니다. 복음 말고는 이런 것을 느낄 방법이 없어요.”라고 설명한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신은 우리를 계속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계선이 없을 때는 우리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더 큽니다. 성약을 지킴으로써 경계선 안에 있게 되죠. 이 경계선은 알지 못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여러 번 도와주었으며, 불경한 말을 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경계선은 명확한 선을 긋도록 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울 것이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니파이전서 3:7)

때때로 계명은 따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니파이처럼 충실하리라고 다짐한 청년 성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 영국의 던컨 퍼서는 자신에게 어떻게 그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한다.

“십일조는 이미 경계선이 정해진 계명이에요. 우리는 수입의 10퍼센트를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는
물몬경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쇠막대를 붙들도록
도와줄 것이다.

바칩니다. 하지만 금식 헌금에서는 더 큰 순종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저축할 때는 금식 헌금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금식주일에 정말 힘들었죠. 과연 금식 헌금을 내야 할지, '후한' 헌금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는 기도하기로 했고 그 결과 금식 기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어요.

저는 주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축복하심을 알고 있으며, 제가 순종할 때 생필품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며,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됨을 깨달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질 것이며, 주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표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표준을 얼마만큼 지킬 것인지와 우리의 순종이 자신을 변화시키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영의 속삭임을 따르면 축복이 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확히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명령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며 준행하였으며, 참으로 또한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앨마서 57:21)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천 용사처럼 정확히 순종하려 노력한다면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때, 그분들은 회개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저는 이상형이었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순결의 법을 아주 조금 어긴 대가였습니다.”라고 타일러(가명)가 말했다. “하지만 순결의 법을 ‘아주 조금’ 어기는 것도 어기는 것이지요. 저는 순종이 가져오는 소중한 축복들을 계속 놓쳤습니다. 저는 제 삶에 영이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감독님과 접견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소한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결의 법을 100퍼센트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겠다는 제 결정은 우리 관계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순결의 법을 어긴 것이 관계를 망쳐 버렸습니다.

순결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순결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난 당신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의 삶이 구주가 중심에 있도록 하고 싶은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신 성인으로서 우리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의 법은 나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 새로 찾은 간증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주께로, 그리고 제가 찾을 영원한 동반자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순종은 위험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전갈을 받고는 감히 산기슭으로 내려가려 아니하니라. ……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리혼타이를 산에서 떠나 내려오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산으로 올라가”(엘마서 47:11~12)

리혼타이는 안전한 곳에 머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조금 내려가서 자신의 적을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 리혼타이는 자신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나 아멜리카이아는 “점차로 도박을”(엘마서 47:18) 먹여 그를 살해했다. 아마도 리혼타이는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는지 모른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클라우디아 알은 어떻게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말한다.

“사회의 도덕적 표준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술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한 모금 정도 마셔도 죽지는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합리화는 실제로 자신과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바로 선택의지가 정말 시험받게 됩니다.

따라서 멈추는 법과 확고하게 입장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죠. 사람들이 도덕적 표준이 모호한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곳은 나중에 정말 부도덕한 곳이 되어 버립니다. 헤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즐거운 데이트를 몇 번 했었는데, 한번은 어두운 곳에 주차하고선 둘만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과도한 스킨십을 하려고 했죠.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았습니다.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독신 성인으로서 뭔가 우리 표준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물론 데이트할 때 손을 잡거나 안고 입을 맞추고 싶겠죠. 사탄은 순결의 법이 모호한 영역이라서 우리가 일부분만 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려 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잘못될 때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며,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표준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다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지라도 네게는 상관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네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이더서 12:37)

모로나이가 미래의 이방인들이 축복받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로나이 자신이 먼저 충실하게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세상은 충실한 청년 성인들이 표준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남들이 다른 길을 택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표준의 길을 택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청년 성인들처럼 한국에 사는 빅터 김은 자신의 표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속하게 되었다.

“때때로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언제나 술이 빠지지 않아요. 함께 마시자는 압력이 있을 때 모든 권유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을 미리 알립니다. 저는 여전히 제 경계선 안에서 굳건하게 서며 자신감을 보여야 합니다.

제 경계상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않으면 타성에 젖게 되고, 결국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에 둔감해지고 더는 무엇이 그른지, 왜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또래 압력 또한 정말 클 수 있습니다.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설령 친구들의 말이 우리 표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럴듯하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두어 서로 이야기하고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표준을 지킬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저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만큼 합당합니다. 저는 순종할 때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

로리 폴러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유행하는 태도는 거짓이라는 악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악마의 공구상자에는 사람들을 배도하게 하는 정밀기와 효력이 좋은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악마는 그러한 것을 매우 즐겨 씁니다.

오늘날 점점 더 악마가 잘 쓰는 톱은 다음과 같은 미묘한 거짓말의 형태로 옵니다. “영적이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꼭 조직된 종교에 속할 필요는 없어. 모든 교회는 어쨌든 불완전하고 부패했잖아.”

이 같은 기만은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긴 몇 가지 진실이 커다란 거짓말을 가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사실이 교회라는 조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그 근거로 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1.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구주께서 베푸신 성역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에게 부름과 권세를 주시고, 지도력을 훈련하시며, 한 무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와 함께 주님의 사업도 거부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절정의 시기에 그분의 교회와 역원들을 조직하셨으며 현대에도 이를 다시 조직하셨습니다.”¹

2. 교회는 복음과 그 의식을

집행한다. 구주는 분명히 침례와 성신의 은사(요한복음 3:5 참조),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의식들을 행할 권세가 규제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신권 권세가 필요하며, 이 권세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집행하는 안수를 통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권 권세는 봉사하려는 소망이나 경전 읽기를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²

3. 교회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준다. 칠십인 회장단의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님은 최근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³ 비록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고, 봉사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다시 새롭게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도와줍니다.

4. 단합이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때 그분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단합에 대한 그 성스러운 소망을 부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단합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하고 또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5. “조직된”이란 말은 “나쁜” 혹은 “부패한”이란 말과 동의어가 아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사람, 혹은 사물을 “조직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종교에 적용할 때 이 말은 “경시”의 뜻이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를 세운 이유 중 하나가 “개개인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악을 대항하기에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32:8)라고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조직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악마가 거래 도구로 쓰는, 거짓말에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는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줄 일련의 도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주어진 경전, 성신의 은사, 여러분의 간증, 현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진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교통하는 체널”,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84-85쪽.
2. 델린 에이치 옥스,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리야호나*, 2011년 8월호, 50쪽.
3. 도널드 엘 홀스트롬,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십시오”, *리야호나*, 2012년 5월호, 14쪽.
4. 헨리 비 아이어링, “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69쪽.
5. 닐 에이 맥스웰,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0쪽.

원문: 사진: 신화; 크리스티나 스티스; 오른쪽 확대 사진: 그리스도와 젊은 교원;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moy Co. 제공; 열기/새벽 신문의 회복; 윌터 레인; © 1987 사진: 신화; 월트 시 앤더슨 © 1987

“한 친구가 저를 몹시 불쾌하게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친구를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를 잇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마음속 상처를 극복하려면, 여러분과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일입니다. 친구에게 자비를 보이십시오.(교리와 성약 64:8~10 참조)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사랑과 평화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십시오.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계속 노력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친구를 용서했으며 여전히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정을 잃고 그 자리에 응어리진 마음을 품는다면, 진정한 용서가 낳는 평화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주의 속죄에 의지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고 주께서 도와주시리라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권능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심판에 맡기세요

사람들이 해로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심판하게 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 마음의 상처는 잇기 어렵지만,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한다면, 끔찍한 상처도 용서로 치유되고 증오가 있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사랑이 깃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너시스 에이치, 16세, 칠레 안토파가스타

모두를 용서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때문에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통을 극복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도 용서할 힘이 있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두를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록 상처가 더디게 아물더라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호우 오, 17세, 아이보리 코스트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제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화나게 하면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려 했고 최대한 더 많은 친절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분노가 마음속에서 끓어 들어가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누구와도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케이티 에이, 18세, 미국 유타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느끼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킴벌리 비, 18세, 미국 네브래스카

용서할 마음이 들게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서로 용서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세요. 마음에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입니다. 용서는 마음에 생긴 가장 엄청난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리하이 이, 16세,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아부다비

자애를 기억하세요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애는 곧 사랑이라”(니파이후서 26:30) 한 친구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은 자애였습니다. 자애란 누군가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낙담하게 한 누군가에게 인내심을 보이며, 누군가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자애를 보인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리젤 브이, 21세, 필리핀, 네그로스옥시덴탈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용서는 무척 힘든 일이지만, 늘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두를 용서하신 구주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진정한 용서는 때때로 긴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때 큰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고통이 사라지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리오나르도 엘, 20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속죄를 신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내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가슴에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군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버지니아 엔, 20세, 페루



구주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불쾌해질 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혹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겪을 때, 그러한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기독교인다운 행동이 가장 중요한 때일 것입니다.”

Elder Jeffrey R. Holland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Lessons from Liberty Jail,” *Ensign*, Sept. 200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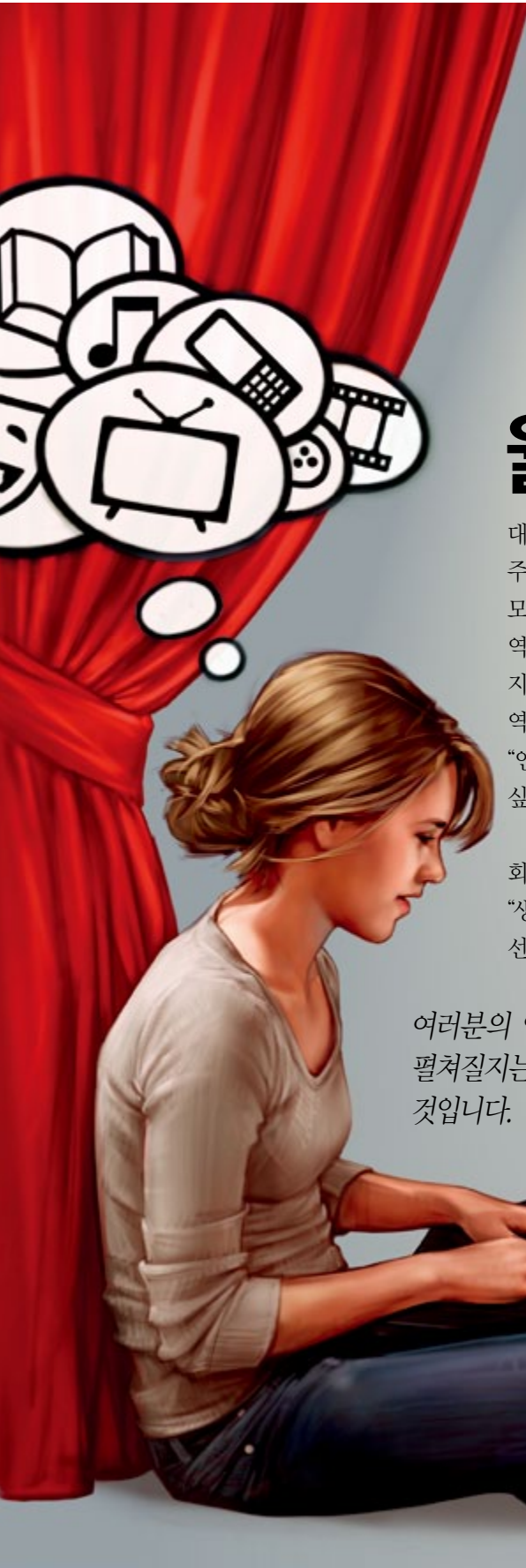
다음 질문
“성전이 너무 멀어서 자주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 삶에 성전이 더 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3월 15일까지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혹은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3/2013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조명 카메라

일 리엄 세익스피어의 희극 “뜻대로 하세요”에 나오는 “세상이란 모두가 하나의 무대”라는 대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익스피어의 주인공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우리가 모두 인생이란 장엄한 연극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혹은 더 나아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며 행동에 선행합니다.” 여러분의 뇌에 있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대사가 펼쳐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대사로 만들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뇌가 컴퓨터와 같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력한 것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만 입력했다면 출력되는 것도 모두 쓰레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 읽고, 듣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대사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이미지와 생각

오랫동안 광고업에 종사했기에 저는 미디어가 어떻게 강한 이미지와 생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기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멋진 텔레비전 광고는, “촬영”이 대개 수개월이 아닌 수일 내에 끝난다는 것을 빼고는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광고 캠페인을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계획한 다음, 할리우드 촬영기사와 이탈리아 출신 모델, 뉴욕 시에서 활동하는 음악 프로듀서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신 없는 제작 일정을 따라 온갖 미디어에 광고를 냅니다. 그 일은 매력 있고 신이 나며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했기에 저는 여러분이 온라인, 텔레비전, 잡지에서 보는 광고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오초아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액션!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는 만들어낸 것이며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광고 속 상품을 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지 않는 제품의 광고는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광고의 실상을 이해합니다만, 영화와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전자 게임도 똑같은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이면에 계산된 이미지와 의도를 담아 제작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하기에, 우리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중 매체를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고양시키는 대중 매체만을 선택하십시오.”²라고 나오는 이 권고를 한 치의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신앙을 발전시키고, 시험받고, 배우며, 행복해지기 위해 이 지상에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위대한 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옳지 않을 때 경고해 주시는 성신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한, 선택의지의 권한을

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종 현명하지 못한 일을 했고, 가끔 옳지 않은 콘텐츠를 보거나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변화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영을 느끼는 능력이 약해졌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힘과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모님이나 감독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거나 두려울 수 있으나 그럴수록 더더욱 이야기해야 합니다. 용기와 겸손함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영광스러운 평화와 회개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무대 위에 선 배우가 아니라 좋고 나쁜 미디어로 가득한 시험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옳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영성을 키운다면, 인생에서 행복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빛을 발하여 사람들을 돕고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둠이 항상 있지만, 선함과 빛의 샘으로 인도하는 영원하고 밝게 빛나는 길 역시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

주

1. David O. McKay, *Stepping Stones to an Abundant Life*, comp. Llewelyn R. McKay (1971), 206.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11쪽.



우리의 시간을 들일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 또는 잡지 읽기를 선택하는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한 오락물을 시청하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거나 가장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5쪽.

비디오 게임 중독

익명

익 세 살 때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비디오 게임을 사주셨다. 비디오 게임은 내게 생소했지만, 그래픽도 멋지고 무척 재미있었다. 나는 그때 방학이었기에 얼른 게임을 끝내고 바깥에서 친구들과 더 많이 놀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에 나는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벌써 자정이 지났고 저녁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계속 게임을 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다. 다음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게임이었다.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내 생각은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에만 쏠려 있었다.

토요일 저녁에 엄마는 내가 일찍 자지 않으면 다음날 일어나서 교회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새벽 3시까지 계속 게임을 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피곤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성찬을 전달할 수도 없었고 집에 돌아가 완전히 지쳐서 폱아떨어졌다.

일요일 내내 잠만 잤고, 월요일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내가 켤 이유는 단 하나. 계속 게임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 주에도 나는 숙면을 취해야 하며 일찍 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에만 시간을 계속 허비했다. 경전을 읽는 것보다 비디오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사실 여러 날 동안 경전을 아예 펴지도 않았다. 개학 후, 엄마는 주중에 게임을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일요일을 포함해 주말에 게임을 했다.

더는 일요일 봉사에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나는 비디오 게임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버리게 되었다.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평범한 것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 충고는 늘 내 마음을 찔렀다.

삶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세미나리였다. 우리 중학교는 세미나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 있었고,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세미나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두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에 간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진정으로 변화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다행히 게임을 그만두는 데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내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야 실현되었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들을 발전시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매일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몇 가지
가치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그 가치관들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그 가치관들은 청년에게만
전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중요하듯, 여러분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입니다.

신앙

청녀의 첫 번째 가치관은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은 복음의 첫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취사선택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취사선택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며, 그
끝은 불행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런 신앙이 강화될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청녀의 두 번째 가치관은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난 하나님의
자녀”를 어른들의 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심장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장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심장이 매일 뿜어내는 양은 유류 수송 열차에 약 7,750리터를 주유할 수 있을 만큼이나 됩니다. 심장 안에 있는 밸브 4개는 하루에 10만 번, 연간 3천 6백만 번 열고 닫히는 데도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이, 플라스틱, 금속, 강철 등 그 어떤 것도 그 만큼 여러 번 여닫으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의 모든 장기는 아주 잘 고안되었고, 기능 면에서도 매우 정교합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수영을 해봤다면, 그렇게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숨 쉬게 하는 걸까요? 목에 있는 조그만 계량기 두 개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뇌에 “네 몸속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빨리 제거해.”라고 알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물 위로 올라와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숨을 내 쉰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헤칠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가치

그다음으로 생각해 볼 청년 가치는 개인적인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는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이 될 것이며, 이기적이기보다는 의로워지고,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동정심을 베풀려 하고,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고결성을 갖추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압니다. 참으로 교회의 모든 충실한 청년은 개인적인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청년은 “나에게는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해야 하는 신성한 사명과 무한한 가치가 있다.”(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소책자, 2009], 29쪽)고 선언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고귀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개인적인 가치는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 키워주지 못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나 다른 영웅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신앙이 내게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신앙은 여러분이 직접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개인적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은 것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식은 모두 개인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의식과 축복은 성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엔다우먼트와 부모, 배우자, 조상에게 인봉되는 의식을 받습니다. 승영에 관한 모든 의식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의식은 개인적인 것이며, 승영에 관한 의식에는 한 사람 이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식

그다음 청년 가치관은 지식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는 것은 종교적인 책임입니다. 앞으로 타인에게 가지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교육합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선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학교를 얼마나 다니셨나요?” 물론, 오래 다녔습니다. 의학 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의술 활동으로 첫 봉급을 받을 때까지 12년 반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디만, 만약 제가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12년 6개월을 보내면 제가 몇 살이 될까요? 정확히 똑같은 나이를 먹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1972년에 스벤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의 심장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예지입니다.(교리와 성약 93:36 참조)

선택과 책임

그다음 청년 가치관은 선택과 책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선택의지”입니다. 도덕적 선택의지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책임 가치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서 생기는 결과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란색 넥타이를 매느냐 빨간색 넥타이를 매느냐, 혹은 보라색 옷을 입느냐 녹색 옷을 입느냐 하는 것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에 가까워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선택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간청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행

다음 청년 가치관은 선행입니다. 이 가치관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봉사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좋은 어떤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입니다. 따라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은 선한 행동을 하여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아프리카에 처음

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러셀 시 테일러 장로님이 저와 동행하셨는데,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테일러 장로님이 제 구두를 닦아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일러 장로님은 제 구두를 닦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 행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고결성

그다음 청년 가치관은 고결성입니다. *고결성(integrity)*이란 단어는 “완전함”, “원래대로”라는 뜻인 *integer*에서 왔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심장의 구조적인 완전함(integrity)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는 심장이 완전함(integrity)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더는 제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고결성(integrity)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전에서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 하이럼은 “마음이 고결”(교리와 성약 124:15)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주님은 심장에 대한 해부학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이럼의 영이 지닌 고결성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정결

새로운 청년 가치관으로 정결이 추가되었습니다. 정결은 놀라운 단어입니다. 정결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결은 “순결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신약전서에서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구주의 옷자락을 만진 일을 기억하십니까? 구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영어 성경에 *virtue*라고 쓰여 있음-옳긴이)이 나간 줄 앎이로다”(누가복음 8:46) 이때, 정결(*virtue*)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정결은

dunamis(더나미스)인데 이 단어에서 *dynamo*(다이너모: 발전기를 의미함-옳긴이)와 *dynamite*(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의미함-옳긴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청년 청년들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정결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십시오

지식이 힘을 줍니다. 순결도 힘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힘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얻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구상이 되든, 외과의사가 되든, 변호사, 건축가가 되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다면 어떤 합당한 직업도 훌륭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고결한가? 순결한가? 사랑이 있는가? 동정심이 있는가? 이런 속성은 숫자로 잴 수 없습니다. 청년 가치관의 속성을 생각하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그 가치관들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2011년 11월에 케냐 나이로비 청소년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발췌





세미나리 선생님도 바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필리핀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학업에 전력을 쏟는 곳이다. 그곳은 과목도, 수업 시간도 더 많고 숙제도 엄청나다. 청년 시절에 내가 성장한 환경은 그러했다.

나는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많은 활동을 포기했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아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회 활동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학교 행사 때문에 일요일에도 종종 교회를 빠졌다. 세미나리 참석도 어려웠다.

어느 토요일, 세미나리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 하지만 자매님은 바쁜 일정에도 도서관에서 세미나리 숙제를 하고 성구 익히기를 하셨다고 했다. 나는

자매님처럼 해 보기로 했다. 항상 성구 익히기 카드를 들고 다니며 쉬는 시간에 다시 들여다 보았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과 세미나리 공부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고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간구했다. 나는 등학교를 하는 길에 경전 구절을 외웠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에도 카드를 꺼내놓았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친구들은 성구 익히기 카드를 들고 내게 문제를 내주었다. 그 후, 몇 명은 자신의 경전을 들고 와서는 자신의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주변 분위기가 변화했음을 느꼈고, 학교 생활은 더 밝고 좋아졌다.

세 여동생은 내 모범을 따르게 되었고, 이제 우리 가족은 경전이 우리 집에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를 경험하고 있다. 성구 암기는 매우 단순한 일이지만, 단어를 외우는 것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

나는 경전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배웠다. 나는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과 고난이 어떤 것이든 사랑이 많으신 구주의 말씀에서 힘과 인도를 언제나 찾을 수 있음을 안다.

마리아 앤테카,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가장 훌륭한 언어

기도할 때, 간증을 나눌 때, 거룩한 성찬을 축복할 때, 말할 때도 같은 입을 사용하기에 우리는 주의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말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사는지가 대부분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29)고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불경의 반대는 기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인도를 받고 복음의 무한한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제러드 로드리게즈, 미국, 메릴랜드



새로운 친구 사귀기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데, 새로 전학온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마이클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마이클은 형들 무리와 함께 앉으려 했는데, 그 형들은 친근하게 대하는 듯 싶더니 결국은 마이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형들은 마이클이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끈질기게 놀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정말 신경이 쓰였다. 나중에 나는 마이클이 자폐아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마이클에게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앉지 않겠냐고 물어봤다. 마이클은 다시 사람들의 놀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거절했다. 마이클은 혼자 앉기로 했다.

다음날, 나는 마이클에게 다가가서 내 친구들을 소개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서 마이클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틱택토 게임(두 명이 번갈아 가며 O와 X를 3×3 판에 써서 같은 글자를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상에 놓이도록 하는 놀이-윷긴이)을 아주 잘했다. 거의 무적이었다. 또 마이클은 굉장히

똑똑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을 모두 알고, 재임 기간도 정확히 말할 수 있었다. 마이클은 대단한 아이였으나 장애 이면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마이클과 함께 앉는다고 나를 놀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마이클과 노는 게 좋았다.

매일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고 만날 때 마이클이 점점 더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이클은 매일 점심 시간을 기다렸고 나 역시 그랬다. 내가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훌륭한 우정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로라 파츠, 미국, 일리노이 주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결 혼에 대해 물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고등학교 스페인어 선생님이 내게
물으셨다.

반 친구들은 내 대답을 들으려고 모두 몸을
돌렸다. 우리 반의 토론 주제가 돈키호테와
돌시네아에서 데이트와 결혼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나는 긴장했다.

그 교실에서 교회 회원은 나 하나뿐이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까? 영원한 결혼에 대해 말하면 모두
비웃을까?

“우리는 어”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말을 더듬었다.

그때 내 친구 데니스가 날 도와주었다.
“결혼에 대한 물몬들의 생각은 아름다워요.”
그녀가 말했다. “물몬들은 성전에서 하는 결혼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어요.”

선생님은 “그거 멋지구나.” 하고 대답하셨다.
반 친구들도 만족한 듯 보였다.

그러고는 다시 수업이 이어졌고, 비회원인
친구가 그토록 쉽게 답했던 질문을 두고 나는 왜
그렇게 진땀을 흘렸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 알게 되면서
후기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질문에 답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나는 우리가

장황한 답을 해야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배웠다. 복음의 아름답고 간단한
교리 그 자체가 답이 된다.

앞으로 언젠가 친구들이 우리가 “구원의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때
다음과 같은 짤막한 답변을 사용해 보자. 이
답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있기에, 구원의 계획
전체를 도표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말 그대로 형제자매이다. 전세에서 우리
각자는 신성한 성품과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전세의 삶과 지상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지상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그 계획에는 육체를 얻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살아 있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전세에 관해 망각의 장막을 치심으로써 우리가 시험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인생이라는 경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1쪽)

현세의 삶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삶은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데, 미래의 우리 삶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복음대로 산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운다.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앨마서 40:11~12)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적용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처럼 살려고 애쓸 때 그분의 속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앨마서 40:13~14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 주셨다. 구주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고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준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구주의 시신은 3일간 무덤 속에 누워 있었으나 그 후 그분의 영은 다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셨기 때문에(몰몬서 7:5 참조)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완전한 육체로 영원히 살 것이다. ■



대화에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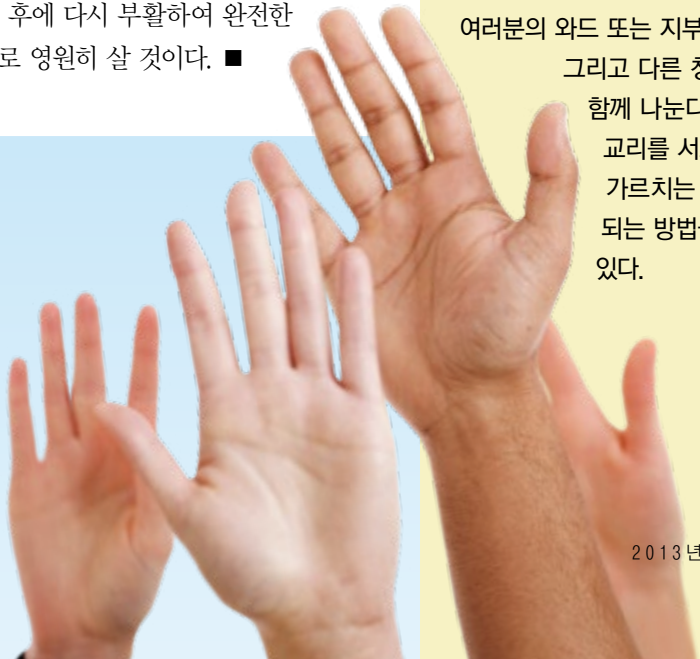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주일학교와 청년 반, 신권 정원회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 여러분이나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추가 질문 목록을 만들고 여러분의 워드 또는 지부의 교사,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나눈다. 함께 이 교리를 서로에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기

“단순히 복음 원리를 공부하기보다 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공부와 실천을 결합함으로써 얻은 그 특별한 지식 덕분에 여러분이 참되다고 아는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마이클 오터슨, “우리 종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에서,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78쪽.



모임 사회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여러분이 열두 살이 되어 초등학교에서 청년 혹은 아론 신권회로 진급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즐거운 일들이 많을 것이며 앞으로 하게 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는 새로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책임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모임의 사회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상호 향상 모임, 일요일 모임, 정원회 혹은 반 회장단 모임 등)의 사회를 맡느냐에 따라 요구 사항과 안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일반적인 제안과 안내를 보면서 이 책임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모임인가를 개괄적으로 알려주는 순서지를 사용한다.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적어볼 수 있는 순서지 양식이 있는지 여쭙는다.
- 영을 느끼게 하는 음악을 선택한다.
- 개회 기도와 폐회 기도를 정한다.
- 가능하면 사전에 임무 지명을 한다.
- 일찍 도착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도, 지휘자, 교사, 그 밖의 순서를 누가 맡을지 발표한다.
- 경건하게 사회를 보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 모임에 참석하는 다른 청소년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

모임에서 사회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좀 두려울 수 있지만, 많이 해볼수록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교회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

순서지 예시

교회에서 대부분의 모임은 비슷한 방식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순서지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 환영사
- 개회 찬송
- 개회 기도
- 방문자 소개
- 행사 및 발표
- 공과 혹은 활동
- 폐회 기도

특별한 증인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하 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줄 도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줍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충실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성구를 암기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

몰몬경

경전을 깊이 생각하면 계시를 받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경전의 힘”,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8쪽에서 발췌

정말 중요한 것



샬럿 우드 윌슨
실화에 근거

“주 살아 계시고 날 사랑한다는 이 진리
내게 성령이 말하여 주누나”(“주 살아
계시고”, 어린이 노래책, 8쪽)

5학년은 내게 정말 힘든 시기였다. 몇 년간 친하게 지내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학년이 되자마자 친구들은 욕설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또, 같은 반 친구들에게 못살게 굴었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었다.

마침내 나도 그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나를 큰 입술 샬럿이라고, 아니면 “큰입샬”이라고 불렀다. 나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지만, 같은 반이라 그것도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 시간이었다. 나는 다정하고 쾌활하게 “안녕 애들아!” 하고 인사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안녕? 큰입샬! 큰 입술 샬럿!” 하고 한 목소리로 놀려댔다.

나는 눈물을 꼭 참으며 도망쳤다. 혼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만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눈물로 얼룩진 내 뺨을 보신 엄마께서 “무슨 일 있었니? 샬럿?” 하고 물으셨다.

“예전에는 친했던 아이들이 저를 끔찍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개들이 왜 저를 못살게 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다시 울기

5학년 시절의 샬럿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못쓰지. 그런데 남이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란다. 넌 예쁜 아이야. 그렇게 못된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엄마, 매일 그 애들을 보는 걸요. 그 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 애들이 저에 대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도 다 듣는단 말이예요. 어떻게 그 모두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샬럿,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의견은 너와 주님의 생각이란다. 네가 네 자신과 네가 하는 일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선택을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건, 너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이야.”

그다음 몇 주 동안에도 학교에 가면 나의 옛 친구들이 내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에 기쁜 평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음을 곧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두툼한 입술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남은 5학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별명으로 놀리지 않고, 나에게 좋게 느끼게 해 주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해 기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건 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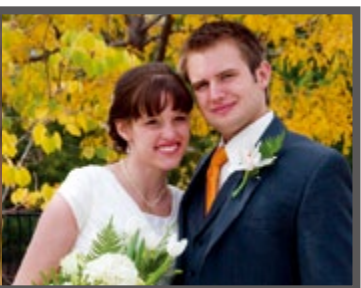
Charlotte Wood Wilson lives in Oregon, USA.



“영으로 빛나고, 정결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있는

용감한 청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122쪽.



결혼식 때의 샬럿

우리들 이야기



리자 피, 7세, 러시아

볼리비아에 사는 호셀린(5세)과 카밀라 시(2세)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셀린과 카밀라는 교회에 가려고 빨리 준비하고, 부모님께서 교회에 정시에 도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 두 친구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초등학교 공과 시간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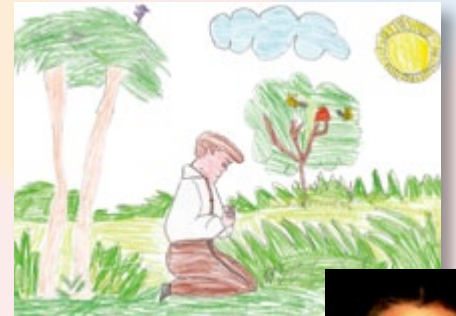


저는 물문경에서 니파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니파이가 가족과 함께 광야로 여행하고 배를 만든 이야기가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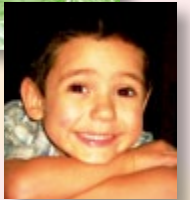
사울 티, 11세, 멕시코



MISSIONARY



토마스 피, 5세, 아르헨티나



언젠가 휴일에 오빠와 이모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이모 댁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축복해 주셨지요.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후에 어떤 남자 승객이 자기를 내려 달라고 했어요. 버스 안내원이 그 남자의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왔는데, 그때 제게 "네 가방이 없어졌어."라는 작은 음성이 들렸어요. 창 밖을 내다보니 우리 짐이 정말 버스에서 내려져 풀숲에 감춰져 있었어요. 저는 그 짐이 그 남자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그 속삭임이 성신께서 주신 것임을 저는 알아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바니엘라 알, 10세,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에밀리아 에이, 11세, 핀란드



피델 앤, 11세, 콩고 민주 공화국

“나는 몰몬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앤 엠 딘,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2012년 10월 연차 대회

ILLUSTRATION BY CRAIG STAPLE



지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와!” 애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별들 좀 봐!” 캠프파이어를 하던 애나의 가족은 모두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새까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수백만 개는 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렴.”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란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저요! 작년에 바닷가에서 본 커다란 파도요.” 다니엘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애나는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나는 따뜻한 태양, 밝은 달,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애나는 자신이 부드럽고 털이 난 동물이라면 다 좋아한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동물요!” 애나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추워서 몸을 떠는 애나를 담요로 감싸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지. 창조물들은 그분이 보시기에 훌륭한 것들이었다.”

애나는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애나는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기고는 고개를 젓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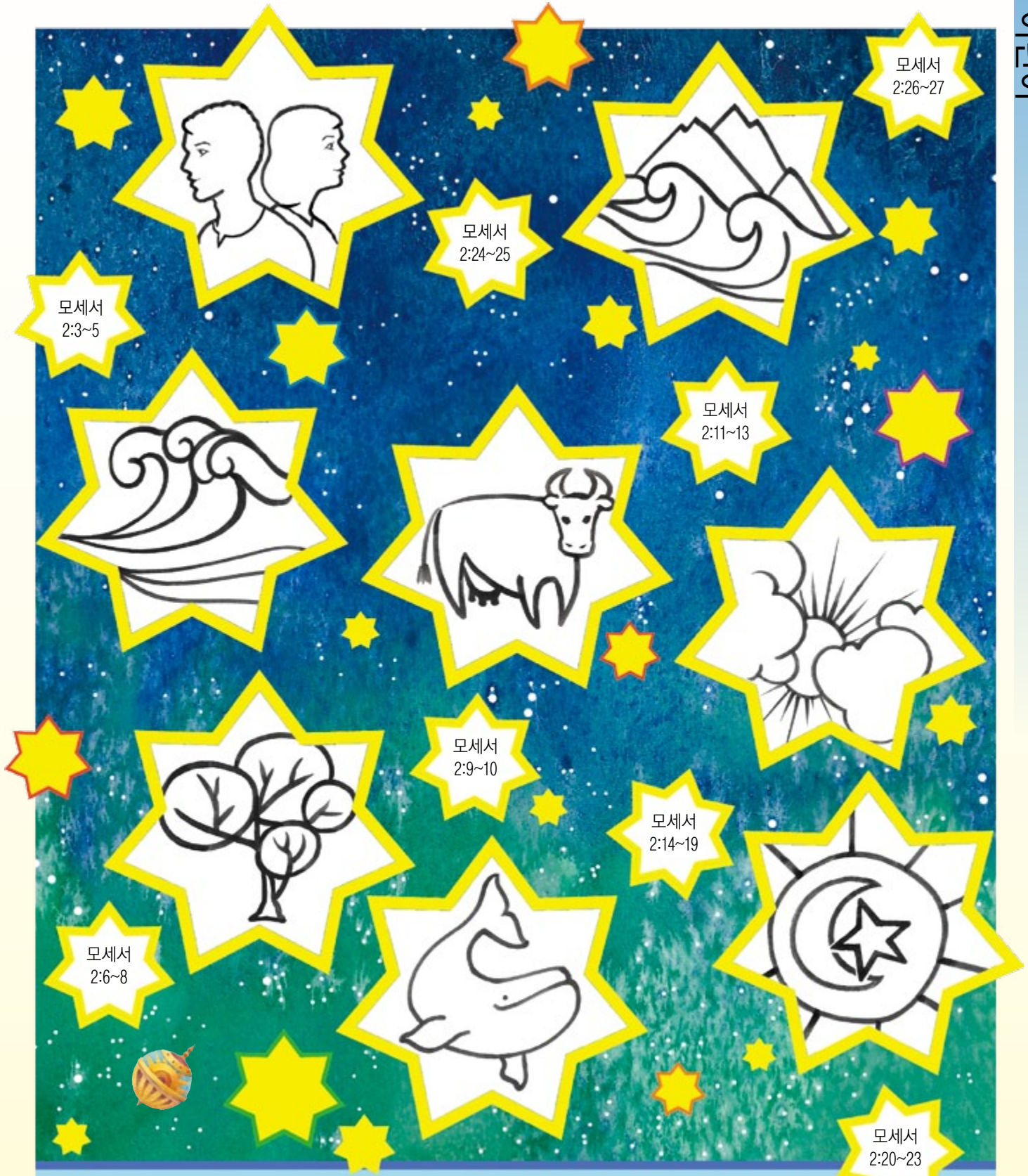
노래와 성구

-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어린이 노래책, 16~17쪽)
- 모세서 2:3~27

가족 대화를 위한 아이디어

- 가족들에게 종이봉투를 하나씩 주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 세 개를 모아 오라고 한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거나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그런 후 그것과 그 외 다른 창조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 주는지 이야기한다.
- 차레로 돌아가면서 별들에 적혀 있는 경전 구절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내용에 맞는 별을 찾아본다.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이 공과와 활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서
2:26~27

모세서
2:24~25

모세서
2:3~5

모세서
2:11~13

모세서
2:9~10

모세서
2:14~19

모세서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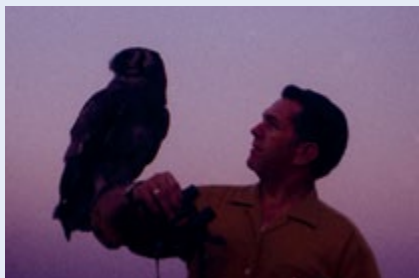
모세서
2:20~23

축복으로 가득한 하늘

위에 나오는 구절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을 나타내는 그림과 짝지어 보세요. 짝이 맞는 별 그림과 경전 구절 별을 같은 색으로 칠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득한 아름다움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아 프리카에 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망원경으로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여러분 쪽으로 다가옵니다. 수리부엉이입니다! 수리부엉이가 점점 다가오자 여러분은 방어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부엉이는 공격하지 않고 여러분 팔에 조용히 내려앉아서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내며 여러분을 쳐다본 후 다시 날아갑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신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물 중에서 특히 새를 사랑했습니다.

팩커 회장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셨는지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분은 그리고 색칠하며 조각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팩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관찰한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제 영혼에 심어 주었습니다.” ■



팩커 회장은 열한 살 때 이 동물들을 그렸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종종 지역 신문사에서 쓰고 남은 종이를 집으로 가져오셨고, 팩커 회장은 땅바닥에 엎드려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림을 질병에 비유한다면 저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팩커 회장은 열 살 때 가족 캠핑 여행에서 발견한 솔방울로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조종사로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집으로 편지를 보낼 때에도 팩커 회장은 쉬는 시간에 꾸민 봉투를 사용하셨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몇 년에 걸쳐 수십 마리의 새를 조각하셨습니다. 조각을 하는 시간은 긴장을 풀게 하고 앞으로 무엇을 말씀해야 할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패커 회장님은 어렸을 때 오래된 나무 상자와 이웃에게 받은 물감으로 아래에 있는 나무 새를 만들었습니다.

제니퍼 메디
실화에 근거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로새서 3:20)

에 단은 진열대에 늘어선
다채로운 색깔의 비디오
게임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에단에게 생일 선물로 게임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고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에단의 시선은 자동차 경주 게임에서
어드벤처 게임으로, 다시 댄스
게임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침내, 에단은
자동차 게임을 집어 들고선 아빠에게
가져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찾았니?” 아빠께서
물으셨습니다.

“경주 게임을 살래요.” 에단이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등급이 어떻게
되지?” 아빠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에단은 게임팩 뒷면을 보았습니다.
에단은 특정 등급의 게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갖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에단에게 비디오
게임 등급에 관해 가족의 규칙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단은 많은 게임에 나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표지에서 등급을 발견했고
아빠께 보여 드리며 “모두가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좋아. 계산하자꾸나.
생일 축하한다. 에단!”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에단은 씩
웃었습니다. 집에 가서 새 게임을 해 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며칠 후, 에단은 친구 체이스의 집에

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둘은 초등학교에
같이 다녔고 자주 함께 놀았습니다.
에단은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갖고
갔습니다.

“안녕, 에단.” 체이스는 문을 열어
주면서 “어서 와.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샀는데 한번 해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샀는데!” 에단도 가져온 게임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둘은 컴퓨터 앞에 앉았고 체이스가
게임을 실행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번쩍이며 나타났고 등급도 나타났습니다.
에단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게임은
에단이 해서는 안 되는 등급이었던
것입니다.

등급 규칙

나의 복음 표준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

체이스는 조종기로 메뉴를 열심히 탐색하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에단이 보기에 아직은 나쁜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니다. 에단도 조종기로 클릭을 하면서 게임 속 캐릭터를 움직였습니다. 재미있었지만, 게임을 할수록 불편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직 나쁜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에단은 가족의 규칙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체이스. 나, 이 등급의 게임은 하면 안 돼.” 에단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체이스가 말했습니다. “나쁜 게 없는걸.”

“확실해?” 에단이 물었습니다.

“응.” 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하는걸. 등급이 잘못 매겨진 것 같아.”

그때 갑자기 체이스 엄마께서 방을 들여다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애들아. 뭐 필요한 거 없니?”

에단은 침을 꿀꺽 삼키며 “안녕하세요, 머피 자매님. 전 이 등급의 비디오 게임을 해서는 안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체이스도 “에단한테 나쁜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체이스의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시며 “걱정하지 마, 에단. 저 등급의 비디오 게임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너희 어머니도

분명히 이 게임을 허락하실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머피 자매님은 웃으시면서 방을 떠나셨습니다.

체이스는 계속 게임을 했지만, 에단은 조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에단은 “체이스. 내가 가져온 경주 게임을 하는 게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체이스는 어깨를 으쓱이며, 계속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이 게임 할래.”

에단은 조용히 일어서서 체이스의 방으로 갔고,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 경주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처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족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에단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



함께 만들어요

미셸 트림
실화에 근거



부릉, 부릉, 부릉! 애슐리가 창 밖을 내다보니 파란색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커다란 흙 무더기를 보았습니다. 이웃이 새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흙더미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 집을 지어요?” 애슐리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흙더미는 트럭에서 쏟아져 나왔고, 집은 인부들이 짓는 것이지.”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애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시던데요?”
 엄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 모두를 만드셨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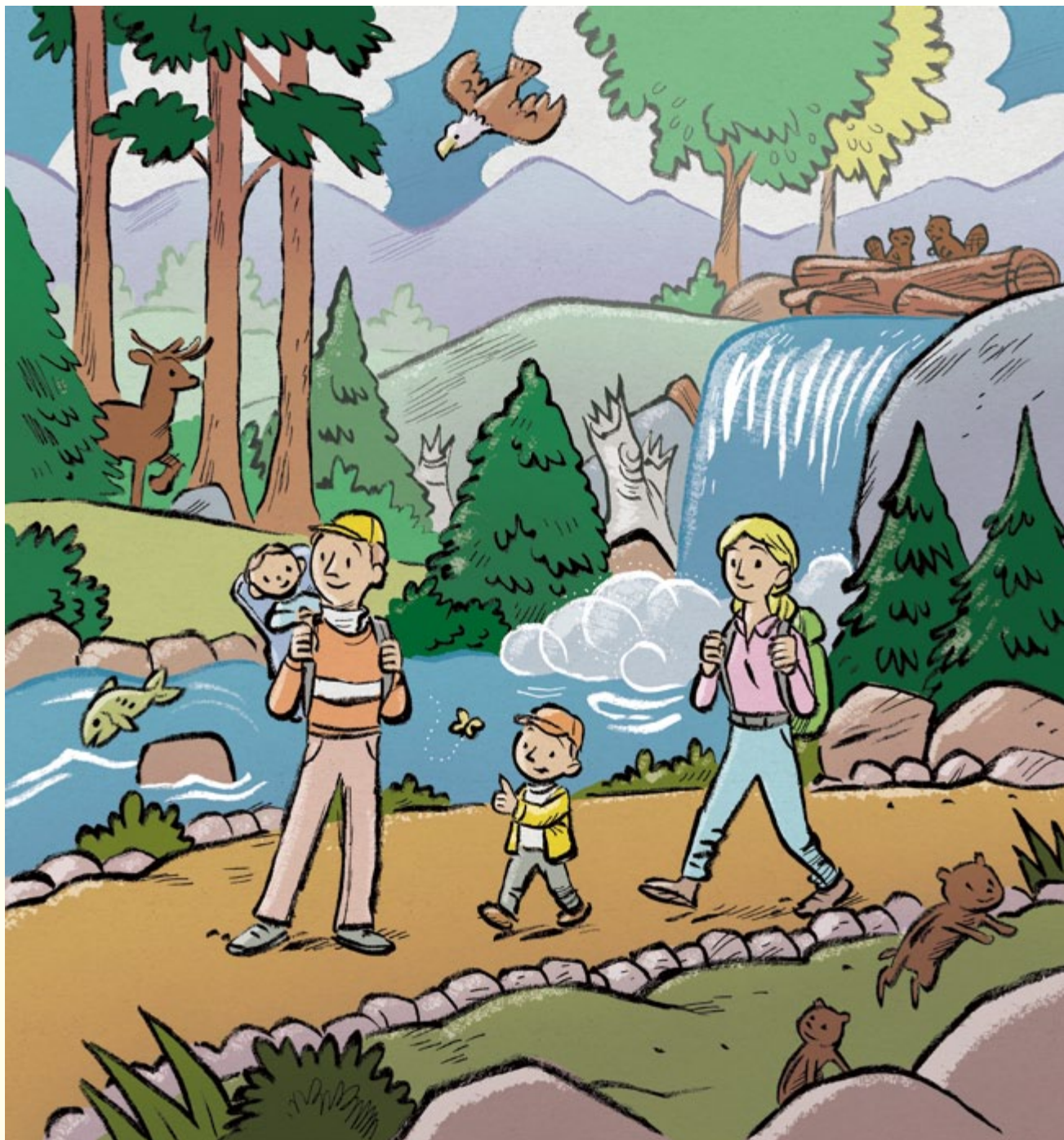
애슐리는 마당을 보며 “나무나 돌, 흙 같은 거 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만드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 몸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슐리는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애슐리의 이웃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애슐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아름다운 지구

애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곳을 보세요. 이쪽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림에서 찾아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교회에서 전 세계 회원들에게 각자의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권장하다

헤더 휘틀 위글리
교회 소식과 기사

지난 해에 교회 복지부는 전 세계 회원들에게 각자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LDS.org의 인도주의 봉사 편에는 이런 제안이 있다. “어떤 필요 사항이나 어려움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 여러분 지역 사회에서 어떤 필요 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해결책을 찾기 위해

2010년에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현지 회원들은 수천 개의 개인 위생 키트를 만들었다.



발벗고 나서십시오.”(LDS.org에서 **자료, 복지, 인도주의 서비스**를 클릭한다.)

교회의 비상 대응 책임자인 라이언 샘슨은 지역 차원에서 인도주의 대응을 할 때의 몇 가지 장점을 이렇게 말했다. “통관 문제를 줄이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지역 회원들이 잘 아는 현지 생산품을 교회에서 구매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아랍권의 여러 나라에 불어 닥친 정치 불안으로 수천 명이 거처를 옮겼다. 교회는 솔트레이크에서 개인 위생 키트를 모아 중동으로 발송하는 대신, 현지에서 지역 회장단에 기금을 제공했고, 요르단에 거주하는 50여 회원들이 현지의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단 5일만에 사만 개의 개인 위생 키트와 식료품 패키지를 모아서 배부할 수 있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봉사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부, 와드, 지부방 내지 스테이크에서도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이 봉사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복지부의 구스타보 에스트라다는 최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마련한 대응책보다는 현지에서 만든

해법이 필요 사항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후, 교회는 신속히 대처하여 기금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송금했고, 그들은 일본 현지에서 식료품과 기타 물자를 구매했다. 일본에서 지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았던 회원들은 물자를 모아 맞춤형 키트 형태로 포장하였으며, 이런 물품은 일반용 키트보다도 재난민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 책임자인 새론 유뱅크는 이렇게 말했다. “회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데서 오는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개발도상국 어린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나에서 후기 성도 자원 봉사자들이 150만 통의 문자 메시지를 가나의 지인들에게 보내 교회 제후 단체에서 후원하는 면역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유뱅크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봉사하면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더 빠르게 진정한 기독교적 형제애를 키울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을 방문한 사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역점을 두다

필리핀 지역 뉴스 위원회

십 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 쿠엔틴 엘 쿡 장로가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2012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필리핀 지역을 방문했다.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청년 독신 성인 노년의 모임, 스테이크 대회, 선교사 모임에서 이 총관리 직원들은 교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도록 격려했다.

베드나 장로는 라구나에서 청년 독신 성인들과 특별 모임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구주께서는 가르침을 위한 주요 도구 중 하나로 질문을 활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기도하여 영감에 찬 효과적인 질문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신에게서 영감을 받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배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레가스피 스테이크 센터의 예배실, 활동실과 다른 여러 방에 회원들이 가득 찬 가운데 쿡 장로는 “여러분의 의심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쳤다.

쿡 장로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 129쪽)을 이용하여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평등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쿡 장로가 모임을 끝내면서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다섯 시간에 달하는 거리를 보트와 버스를 타고 온 파나이 섬 일로일로 지역의 회원과 선교사들은 모임에



사진: 케이트 배이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도우라는 베드나 장로의 가르침을 들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있지만, 진정한 교사는 성신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망귀일 자매는 이렇게 요약했다.

카가안데오로에서 쿡 장로는 독신 성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필요하며, 이 나라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른 영향력이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쿡 장로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의심을 극복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할 것을 권고했다.

필리핀 일리간 스테이크 회장인 카를로 브이 크리스토토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이 참으로 시의 적절한 때에 원리를 가르치고 경전 구절을 나눠 주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 그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 모든 부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맡은 부름입니다.”

두 사도는 두 명의 필리핀 상원의원을 만나고 현지 청소년들이 참여한 문화 행사 참석을 끝으로 필리핀 방문을 마쳤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 쿠엔틴 엘 쿡 장로는 8월과 9월에 열릴 동안 필리핀 전역의 도시들을 방문해 지도자, 회원, 선교사들과 모임을 했다.

라오어로 완역된 물몬경

라오스와 태국, 그리고 미국 및 캐나다의 소규모 그룹에 속한 4,500여 명의 교회 회원들이 라오어로 완역된 물몬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 이 경전은 반양장본으로 현지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store.lds.org(물품 번호 35607331) 및 LDS.org에서 구할 수 있다.

새로 부름 받은 회원들을 돕는 지도력 훈련 자료실

Leadershiplibrary.lds.org는 회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여기에서 교회의 여러 부름과 관련한 100여 개의 동영상을 11개 언어로 볼 수 있다.

동영상에는 여러 나라의 와드와 지부에서 촬영한 화면이 자막 없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 회장단이 추가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할 때마다 분기별로 새로운 자료들이 자료실에 추가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도력 훈련 자료실]의 목적은 지역 지도자들이 지침서에 있는 원리와 정책을 배우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 스테이크, 이탈리아의 여덟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2012년 9월 9일, 88번째 생일이기도 했던 그날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러시아의 두 번째 스테이크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여름 정원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 부부와 함께했다.

7일 뒤에는 칠십인 회장단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가 이탈리아 밀란 스테이크에서 이탈리아 밀란 동 스테이크를 분리하여 새로 조직했다. 이탈리아 밀란 스테이크는 이탈리아 밀란 서 스테이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교회 지도자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국가 원수들을 방문하다

칠십인 회장단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와 유럽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는 2012년 9월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 지도자들과 만났다.

크로아티아에서 래스번드 장로는 이보 요시포비치 대통령을 만나 가족을 강화하는, 교회의 한결 같은 사명을 재차 강조했다.

9월 12일에 래스번드 장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공동 대통령 세 명 중 한 사람인 젤즈코 콤시치와 만났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가 보스니아 정부 최고 지도자와 함께한 최초의 회동이었다.

콤시치 대통령은 보스니아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며, 교회를 이 사회의 일원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래스번드 장로는 교회에서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가족이며, 교회 회원들은 이런 보편적 목표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FR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리아호나는 제 영과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키워 줍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어 사탄의 울가미에서 저를 지켜줍니다. 마치 저만을 위해 쓰여진 것만 같은 메시지가 매달 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매달 그 메시지를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 생활에 매일 적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파멜라 아난타 바르보사 다 실바, 브라질

빛의 길

경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지만, 저는 리아호나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경전처럼, 빛나는 커다란 빛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모든 면에 귀중한 가르침과 기회, 빛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마누엘 데 아라우조 페르난데스, 모잠비크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제자가 되어”, 22쪽: 이 기사에 실린 “제자 되기 실험”을 실천하도록 가족에게 권유한다.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 가르침이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본다. 그다음 주 가정의 밤 시간에 가족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깨달은 내용을 나눌 수 있다.

“조명 …… 카메라 …… 액션!”, 48쪽: 이 기사를 읽은 후에 훌륭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해 본다. 훌륭한 매체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 하나와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가족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편한 마음으로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매체를 찾는 방법을 토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이는 곳에 놓는 것도 좋다. (이 주제를 가르치는 데 유용한 제언을 9쪽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64쪽: 가족이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가족이 함께 그러한 것들을 모아 보거나 그림을 그려 보거나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는 방법도 있다.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어린이 노래책, 16~17쪽)을 노래하며 끝낼 수 있다.

.....

선교사 가정의 밤

교회에 갓 들어온 개종자로서 나는 언제나 즐겁게 와드에서 선교사를 돕는다. 나는 토론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구도자들도 가정의 밤은 좋아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한번은 선교사들과 비회원 한 가족을 우리 집 가정의 밤에 초대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음식을 하고, 영이 함께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가족이 발전하도록 돕고 신뢰 관계를 쌓는 것에 관한 선교사 비디오를 보고 난 후, 우리는 그 비디오에 대한 느낌을 나누었다. 영이 정말 강하게 임했다.

지금 이 훌륭한 가족은 선교사들과 더 만나서 복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선교 사업을 도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가정의 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아 데 로스 안헬레스 빌가 제발로스, 페루

안식일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주일학교 공과는 잘 진행되었다. 누군가 텔레비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일요일에 텔레비전을 봐야 할지 각자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적절했지만, 어떤 반원들은 독선적인 태도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식으로 말했다. 얼마 후 다른 반원들이 불쾌해했다. 처음에 토론할 때 머물던 영 대신 모두 확연히 느낄 만한 긴장감이 팽배했다.

불협화음이 커지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인 네스 페인 회장이 잠시 발언을 해도 되느냐며 물었다. 그분은 일어서서 우리에게 일본 도쿄 북 선교부에서 봉사한 아들, 브라이언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페인 회장 가족은 2003년 3월에 아들이 귀환할 때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브라이언은 턱이 뺏뺏하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몇 주 내에 브라이언은 비호지킨 림프종(림프 세포 증식 질환-유킨이) 진단을 받았다.

한 달 후에 브라이언은 화학 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다. 의사가 9월 22일에 골수 이식을 계획했으나 그달 초에 “브라이언에게



일요일 활동으로
구주를 기억하는
것과 그분이
안식일에 베푸셨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선택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문제가 생겨 버렸다.”

브라이언은 9월 둘째 주에 입원했다. 그때까지 암이 급속하게 퍼져서 의사들은 이식할 때를 놓쳐 버렸다고 판단했다. 가족은 9월 21일에 브라이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왔다. 브라이언은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9월 22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페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 우리는 브라이언에 대해, 브라이언이 가족에게 이바지한 것과 주님께,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2년이란 마지막 세월을 바친 것에 대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그립습니다. 9월 22일에 우리는 브라이언의 생애를 추억하고 그 아이와 관련한 추억에 경의를 표합니다.”

페인 회장은 우리 모두에게 일요일은 잠시 멈추고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구주가 우리 대신 겪으신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막는 어떠한 행동으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페인 회장은 만약 일요일 활동이 영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옳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활동으로 구주를 기억하는 것과 그분이 안식일에 베푸셨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선택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말을 마친 페인 회장은 자리에 앉았고,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사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영이 다시 교실에 찾아왔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듣고 있었다. ■